



9 772383 813003
ISSN 2383-8132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___ 굿샷스크린골프 김범영 대표 ___ 메리움 안희정 대표 ___ 군산우체통거리 운영회장 배학서 ___ 공방 꽃향기 권순영 작가
___ 미가엘 실용음악 연기학원 한동현 원장 ___ 전각서각 전승택 작가 ___ 하늘땅영농조합법인 이길로 대표 ___ 채재승 강사
___ 휴먼컴퍼지트 김태환 공장장 ___ 최창호 시의원 ___ (사)효림복지센터 ___ 송월타월 군산대리점 류응수 대표
___ 군산비행장의 현실 ___ 열정분식소 김연희 대표 ___ 서수초교 김신철 교장 ___ 왜 親日論爭에서 채만식을 물고 늘어지는가?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



새로운 시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가능성은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미래가치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대학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

교육혁신의 선두!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선정
- 국립대학육성사업 선정
-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선정

산학협력의 강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선정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4개 분야 최우수

글로벌 인재의 요람!

-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선정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사업(대형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기술 개발) 선정

군산대학교 발전기금 기부계좌 안내

- 전북은행 558-23-0312120
 - 신한은행 100-011-581350
 - 국민은행 759301-01-595479
- 예금주_ 재) 군산대학교발전지원재단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ww.kunsan.ac.kr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학교 후원의 집

Kunsan National University
House of Patronage



| | | |
|--------------------------------------------------------------------|-----------------------------------------------------------------------|--------------------------------------------------------------------|
| 군산효자요양병원 병원(요양원) 063-472-8300 군산시 청소년회관로 45 | 웨딩아이 스튜디오 웨딩 사진 063-466-2015 군산시 대학로 388 | 군산한우촌 음식(고기) 063-465-6969 군산시 대학로 649 |
| 깜도야 음식(고기) 063-471-9377 군산시 하나문안2길 14 | 은파아리울 레스토랑 음식(양식) 063-464-9393 군산시 은파순환길 174-4 | 파라디소 페르두또 음식(양식) 063-471-8525 군산시 한밭로 76-11 |
| 다래회집 음식(일식) 063-464-7875 군산시 대학로 394 | 오죽 음식(일식) 063-464-5625 군산시 한밭로 17 | 해녀 음식(일식) 063-442-7800 군산시 한밭2길 25 |
| 해담 음식(일식) 063-465-8789 군산시 은파순환길 174-6 | 하이난ISLAND 음식(중식) 063-452-0909 군산시 수송로 128 | 오감 음식(한식) 063-464-0166 군산시 미제길 29 |
| 아이씨엠 출판, 인쇄 063-445-1856 군산시 큰샘길 1 (2층) | 커피니 군산대 원당점 카페 063-466-8599 군산시 원당길 73-5 | 하버브릿지 카페 063-463-7766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 |
| 후원꽃집 화원/꽃 063-466-3400 군산시 문화로 141 | 군산일식 음식(일식) 063-468-8100 군산시 부곡길 7 | |



후원금_ 전북은행 558-23-0312120 재)군산대학교발전지원재단
기타문의_ 063-469-7321

시민과 함께
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군산시**
GUNSAN CITY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
동국사 앞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동국

옥상 테이블에 앉아 동국사를 훤히 볼 수 있습니다.



010-5546-0955

전북 군산시 동국사길 7 (월명동 19-11)

blog.naver.com/firegirln



게스트하우스 동국
예약하기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상상을
그 이상을 향해!



석도국제훼리(주) www.shidaoferry.com

군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서울 tel. 02-725-78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주)제범 tel. 063-461-1803 fax. 063-461-1836

松月

오직 한 길, 71년간 타월만을 고집합니다



이젠 타월도
품격 있는
송월타월로 선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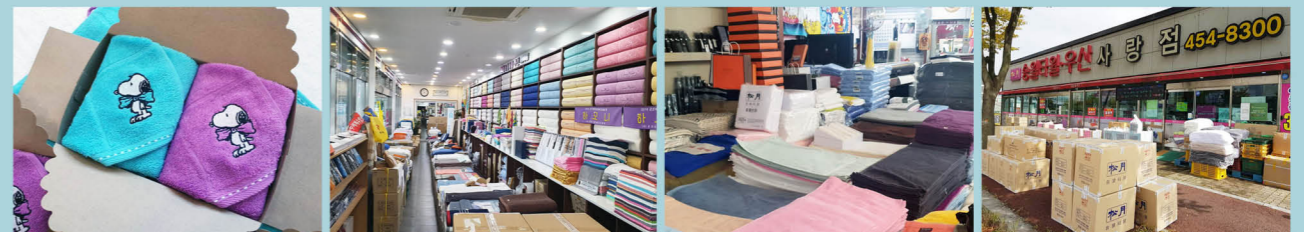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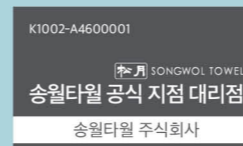
각종행사용 기념타월 선물세트, 관공서, 교회, 학교, 회사 답례용품,
개업, 결혼, 칠순, 단체행사 등 답례용품, 최신 컴퓨터 도입

松月 송월타월
SONGWOL TOWEL
(주)군산대리점

대표 류응수

군산대리점_ 군산시 수송동 442-7 (수송동 군산볼링장 건너편)
T.063-464-8002 M. 010-3672-5140

군산사랑점_ 군산시 수송동 50-7 (은혜산부인과 / 캐리어에어컨 옆)
T.063-454-8300 M. 010-3953-5140





미가엘
실용음악
연기학원

한동현 원장

M. 010-8298-5758

T. 063-471-7181

E. jbguitar@naver.com

전북 군산시 나운로4 현대코아빌딩 201호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의회

시민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노력하는 군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군산시의회

산지 직송
국내산 왕새우 전문점

왕새우 한마당



군산시 서수송안1길 19-4
(수송 코아루 아파트 후문 앞)
T. 063-464-3636



이제는 아이젠카 에서!

아이젠카 견적 업체
이달의 특가 상품 이벤트입니다

월렌트로 최저가 선언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음



특가상품은?

이번달 한 달 동안 업체에서 제공 할 수 있는
최저가 견적으로 판매 하는 상품입니다.

* 특가 상품은 제조사 및 캐피탈사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아이젠카만의 차별화

- 01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계약 관리 팀 별도 운영
 - 계약 이후 끝이 아닌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만족 실현
 - 민원관련 고객센터 운영으로 고객서비스 실현
- 02 **월 납부로 최저가로 견적을 제공하겠습니다**
 - 한개업체 견적이 아닌 복수 견적 중 최저가 업체 견적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 03 **아이젠카만의 서비스**
 - 자동차 전문 상담인력 배치로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 전달 제공
 - 질문을 남기시거나 문자, 이메일 답변 등을 통해서 고객님의 궁금하신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 04 **국내 렌트사 및 캐피탈사 제휴를 통해 최저가 차량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0여개의 렌트사 및 20여개의 캐피탈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차량들을 고객님의 맞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05 **차별화된 차량 비교검색**



군산이 당신의 기억을 힐링해 줄꺼야

근대군산 1930
시간여행 Modern History Time Travel to Gunsan

군산에 귀한손님이 오시면 일제강점기 가옥 게스트하우스 이웃에 모시면 좋습니다

히로쓰가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데크에서
한가로운 저녁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 군산 : 거위를 노래하다 촬영장소

GUESTHOUSE
IUT



010-4048-8811

전북 군산시 구영1길 11-2 (군산시 신흥동 57-10)

blog.naver.com/chunulumi



커피와 식사,
그리고
로맨스

:



COFFEENIE
CAFE

커피니 군산대 원당점 군산시 원당길 73-5 T. 063-466-8599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월간지로서 자택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본 지 마지막페이지에 CMS 구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063)445-185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금처 신한은행 110-180-087549
예금주 이진우 (아이씨엠)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282pyk@hanmail.net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관심합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282pyk@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 후원 업체

- 오죽일식_식사권 / 063-464-5625
- 발렌타인피자_불고기피자 테이크아웃 / 063-442-4886
- 노가리&비어(수송점)_세트안주 이용권 / 010-6542-5782
- 곱창이최고예요(수송점)_곱창 1인분 이용권 / 050-7900-0803
- 도마(수송점)_돼지한마리 세트 / 063-471-0023
- 바나나팩토리_커피 음료권 / 063-452-9479
- 8월의크리스마스_커피 음료권 / 010-8928-3481
- 소셜여행 커피샵_커피 음료권 / 063-446-9466
- 달 커피샵_커피 음료권 / 010-9548-3383
- 철길마을 우리문방구_사진매직거울 / 010-3556-2564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 282pyk@hanmail.net **Fax** (063) 446-1856



Vol.113 | 2020.08

magazine
gun
son

회장·대기자 이복 bok9353@hanmail.net
발행인 이진우 jay0810@hanmail.net
편집장 채명동 ml7614@naver.com
디자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이경호 kyungho159@naver.com
주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편집위원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편집위원 박청숙 njpcslife@gmail.com
편집위원 이현웅 gunsanmusic@daum.net
편집위원 김정인 jibct20102@jibct.or.kr
컬럼니스트 남대진 bitsori454@daum.net
컬럼니스트 운승조 gsforum@hanmail.net

제작 ICM (063)445-1856
주소 전북 군산시 큰샘길1
출판신고번호 467-2011-000002
인쇄 진영인쇄 (063)446-7801
온라인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번호 군산 라 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드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MAGAZINE GUNSAN COLUMNIST



김선화
군산 YMCA 사무총장
군산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위원
전)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ywcags@daum.net



김용환
호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심의위원
전)군산시발전협의회 의장
kyh@howon.ac.kr



김은정
군산시성문화센터 센터장
군산경실련 전사무국장
전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팀장
goni-ej@hanmail.net



김종구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전)군산시 수도위원회 평가위원
kjj466@kunsan.ac.kr



김희진
고창군로컬잡센터장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정책기획실장
전북자동차포럼 사업차장
hjinland@naver.com



박양기
진포문화예술원 원장
군산시민예술총장
전) 청소년위원회 감사단장
pygdrum@hanmail.net



박홍근
군산대 겸임교수
살롬-Info 대표
군산소룡초등학교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whitelove0208@naver.com



서영미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전북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장
sym@howon.ac.kr



심인보
호원대 관광레저학부 교수
군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전) 전라북도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sib@howon.ac.kr



한태욱
군산시청년창업센터 센터장
helloceo777@gmail.com



윤영민
군산대 해양산업융합과학기술학부 교수
군산대학교 기획부처장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youn@kunsan.ac.kr



임병식
연합뉴스 정치패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연구회 상임 부회장
아주경제 논설위원
montlim@hanmail.net



임용택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세계인명사전 부총재
lot@kunsan.ac.kr



전천운
호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박사
c1000w@naver.com



정건희
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dabogh@daum.net



정동원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정보기술학회 부회장
djeong@kunsan.ac.kr



채효석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연구원장
국토부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위원
한국수자원학회 이사
chyosok@gmail.com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
cheon422@jnue.kr



최연길
군산 노불한방병원장
전) 신성한의원 원장
전) 군산시한의사회장
chshch@hanmail.net



최연성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군산시 정책자문단장
군산발전포럼 의장
yschoi@kunsan.ac.kr



최윤
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교수
전) 한국어류학회 회장
전) 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 회장
choi@kunsan.ac.kr



황진
군산 중앙치과원장
군산시민정치포럼 상임대표
전)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byul-bada01@naver.com

매거진군산 컬럼니스트



맥군 회장의 세상정보기

꼭 막힌 군산의 하늘 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승객 감소 등 군산의 유일한 하늘길이 5개월째 막혀 있다. 군산의 하늘길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은 감감무소식인 채 운행하던 항공사들마저 군산-제주 노선을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져 군산의 하늘길이 자칫 막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군산공항은 하루 3편(대한항공 1편, 이스타항공 2편)의 군산-제주노선 운항이 이루어졌으나 올 초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 M&A를 추진했지만,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론나면서 이스타항공은 파산 위기에 몰려있다. 여기에 하루 1편을 운행하던 대한항공마저 적자를 이유로 오는 10월 말부터는 아예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은 군산과 아무런 연고가 없던 제주항공이 군산 미 공군 측에 군산~제주항로 취항을 위한 활주로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 또한 빨라야 10월께나 가능하다.

군산의 하늘길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열릴 수 있도록 군산시와 전북도, 지역정차권이 합심하여 군산시민과 전북도민들이 김포와 광주공항 또는 배편을 이용하는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스타항공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08년 출범 당시 군산을 거점으로 한 지역항공사임을 내세우며 군산시민에게 김포노선 재 운항과 군산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하겠다고 밝히며 출범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 군산시민은 당시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던 군산공항을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취지와 군산-김포노선 재 운항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스타항공의 출범을 환영했고, 군산시는 10억 원

이라는 시민혈세를 이스타항공에 투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새만금개발공사 120억 원, 전북은행 20억 원을 비롯해 군산시민 471명이 총 92억 원을 출자했다. 이러한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의 열망과 지원에 힘입어 이스타항공은 급성장을 거듭해 출범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국제노선도 늘어나고 군산-제주 노선의 이용률도 늘어났다. 그런데도 이스타항공은 출범 당시 군산시민과의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았다.

그로부터 12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이스타항공은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의 기대를 현실팍 버리듯 버리고 제주항공과의 합병을 추진했었고, 제주항공으로부터 인수 포기 결론이 났다. 이스타항공 출범 당시 군산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타 항공사에 팔아넘기려는 부도덕한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는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이상직 국회의원이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는 이스타홀딩스로 편법증여를 통해 이상직 의원의 아들과 딸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기업 이익을 위해 군산시민, 전북도민까지 이용하더니 이제는 필요 없다고 현실팍 버리는 기업과 창업주인 정치인, 이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국회의원이다.

군산시민은 참 바보다.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의하지만, 몇 해 전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그리고 이스타항공의 사례에서 보아왔듯이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적, 비용적 특혜를 주었지만 그 결과는 기업 논리에 의해 냉정하게 철수하는 그들을 우리는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다. 이제 기업유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매거진군산 회장
전 군산시의회의원
이 북

아이와 어른을 위한
신재순 시인의 동시로 건네는 안부 18

꼬리

공재동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어느 날 강아지가 물었다.

“행복은 꼬리에 있단다.”
아빠 개가 말했다.

그날부터 강아지는
꼬리를 붙잡으며
맘을 돌았다.

지켜보던 아빠 개가
가만가만 타일렀다.

“야야, 너는 그저
앞만 보고 달리면 돼.
꼬리가 너를 쫓아가게 돼 있어.”

- <동시마중> 2020년 7·8월

동심을 노래한 시 중 어린이가 쓴 시를 어린이시라고 하고 어린이시와 구별지어 어른이 쓴 시는 동시라고 합니다. 여기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와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이 함께 읽으면 좋을 동시를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안부를 건넵니다. 편안하신지요. 그리고 부디 편안하시길요.

이 시는 어린 친구들보다 어른들이 읽었으면 하는 동시입니다. 어린 친구들은 그저 큰 욕심 없이 웃고 울고, 소리 지르며 행복해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자꾸 행복이 뭔지 생각하게 되고, 행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묻곤 하지요. 어쩌면 시에 나오는 강아지처럼 행복이라는 꼬리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맘을 돌고 있지는 않을까 하기도 합니다. 또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을 모르고 아주 멀리서만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덧 8월입니다. 가까이 있는 행복을 깨닫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신재순
시인 / 한국동시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그린OA시스템
굿샷스크린골프
포티스 힐링 승마클럽

김범영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지곡동 상지곡안3길에 위치한 김앤장 빌딩. 김범영 대표의 성(金)과 부인의 성(張)을 따 명명한 이 4층 건물은 김 대표가 운영하는 그린OA(사무기기)시스템을 비롯하여 굿샷스크린골프장, 포티스 힐링 승마클럽, 그리고 부인인 장은희 씨가 운영하는 '가건모'(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들의 모임) 및 고명딸인 빛나 양이 원장인 필라테스·미 등이 운영되는, 가족의 사업장 겸 생활터전이자 군산 유일의 심신수련복합공간이랄 수 있다.

약간 마른 듯 하면서도 균형 잡힌 체형의 김 대표는 나지막한 말투에 온화해 보이는 성품으로 사업가라기보다는 학자 같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친께서 교육공무원이었다는 말에서 그가 성장했던 가풍이 은연중 짐작되기도 한다. 본래 김제 출신으로 4남4녀 중 막내동생이던 그는 초등학교 때 바이올린을 배우기 위해 부모님이 사주신 악기를 철었던 형이 악기점에 들고 가 자기가 좋아하는 통기타로 바뀌오는 바람에 형제가 모두 부모님께 엄청 꾸지람을 들었던 추억이 새롭다. 이후 그는 전주로 유학, 초, 중, 고를 마치고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하게 되는데 당시 신문방송학과는 전북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개설된 학과로 1기 입학생이 된 셈이다.





김앤장 빌딩 앞에서 김범영 대표

4학년 때인 87년도, 그는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 들어갔다. 전공을 살려 국내 굴지의 언론기관인 4대 일간지 및 KBS, MBC 등을 취업 목표로 잡고 공부에 매진하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이듬해인 88년도 7월 전주KBS방송인 연수 프로그램 기자 파트에 지원한 그는 당시 아나운서 파트 프로그램 참여 중인 요령의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 여성이 지금의 아내인 장은희 씨다. 비록 소망하던 언론계 진출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90년 겨울 김 대표는 장은희 씨와 백년가약의 혼례를 올렸다. 연수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만났던 사람끼리 평생의 동반자가 된 것인데 어쩌면 이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운명이 아닌가 한다.

그린OA시스템 / 굿샷스크린골프 / 포티스(FORTIS)힐링 승마클럽

김 대표가 95년도 들어 시청 인근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은 XEROX사무기기(복사기, 팩스, 프린터, 컴퓨터 전산소모품 등 판매·임대)사업이었다. 기관이나 단체, 개인을 막론하고 행정, 사무 영역이 확장되면서 보다 편리하고 능률적인 기기의 수요가 증대되는 추세에 따라 사업은 순조로웠고 매출 실적도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하지만 점차 높아지는 건물 임대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 소유의 건물을 갖고 싶었다.

이듬해 그는 지곡동 지금의 위치 토지를 토개공으로부터 분양받았다. 미분양분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취득한 것으로서 동시에 얼마 후 나온 동신아파트도 분양받게 된다. 그가 지금의 김앤장 빌딩을 신축한 것은 2007년도, 연건평 300여 평에 달하는 4층 구조로서 1,2,3층은 사업장으로, 4층은 주택으로 설계되었다. 1층에 개설했던 8타석 규모 스크린골프는 당시만 해도 시내 2개 업소만 있던 시절이어서 인기리에 회원제로 운영되었는데, 평소 골프에 미치다시피 살아온 열혈마니아로서 싱글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자신의 취미 분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록스와 삼성제품을 취급하는 그린 OA사무기기의 경우 큰 수익이 났던 초창기에 비해 지금은 경쟁업체가 늘면서 거래처가 많이 감소된 상태로서 복합기의 임대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대표는 2016년도 들어 2층에 포티스 힐링 승마클럽을 개설했다. 모형로봇 말에 올라타 실제 승마를 할 때의 기본자세와 동작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마치 야외를 달리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모니터 시뮬레이션 장치가 되어 있다. 이 역시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승마는 특히 성장발육기 아이들에게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척추 측만증, 협착증을 비롯하여 하체와 허리 기립근 강화 및 장(腸)운동에도 뚜렷한 효과가 입증되거나 불과 30~40분 승마로 3천 칼로리 이상의 열량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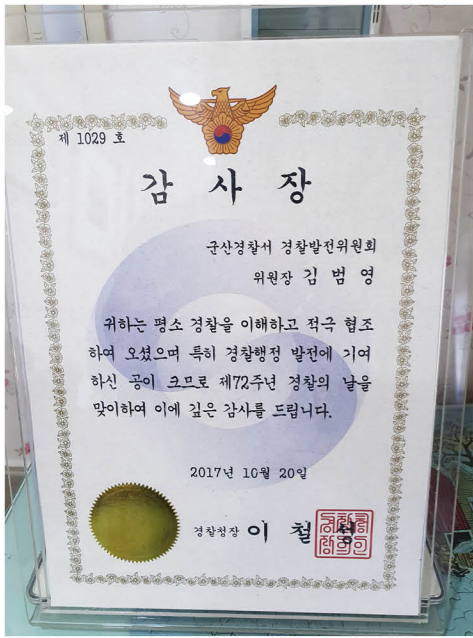
김앤장 빌딩은 김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아내 장은희 씨가 대표인(사)가건모 상담실 및 강의실, 그리고 딸 빛나 양이 원장인 필라테스 미의 심신수련 공간이기도 한데 김 대표에 따르면 같은 건물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가족 간 사업영역이 다르다보니 정작 서로 간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을 때도 많다고 들려준다. 그러나 이들의 가족애는 정평이 나있다. 각기 활동 분야는 다르지만 가정을 절대적 구심점으로 삼기 때문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서로 상의하고 대화는 부드럽우며 양보하고 존중한다.



1남1녀를 둔 김 대표 부부에게 가장 큰 자산은 두 말할 것 없이 자녀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미혼인 큰아들은 성균관대 졸업 후 현재 모 회계 법인에 근무 중으로 재학 시 플루트 연주자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으나 현재는 개인적 취미로 즐기는 정도이고, 원광대 졸업 후 군산대 일반대학원 체육학과를 수료한 딸 빛나 양은 필라테스 강사 자격을 취득하고 올해 6월, 2층에 학원을 개설, 원장으로서 개인별 맞춤 형 지도 및 논문 작성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두 자녀 모두 하나같이 성실하고 착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부모 속을 썩인 적이 없단다.

이토록 단란한 가정이 유지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아이들 어릴 적부터 가족끼리의 여행을 즐겼던 것도 큰 이유가 되었지 않나 한다. 김 대표는 본래 운동을 좋아해 초등학교 때 취미로 시작한 탁구 실력이 일취월장함에 따라 잠깐 선수생활을 한 적도 있었고 볼링에도 취미가 있었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운동을 접고 공부에 전념했다. 돌이켜보면 큰 아이들 지나자마자 자월도(백령도 부근)에 다녀온 첫 여행을 시작으로 겨울에는 가족들과 스키장을 즐겨 찾기도 하고 그간 수많은 국내외 여행을 하면서 자녀들의 견문을 넓힘과 동시에 세상을 보는 시야를 트이게 한 것은 인격 성장에 적잖은 도움이 되었을 터이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지금도 부모님과 여행하기를 좋아하는데 필자로서도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얘기다.





2019. 8월 휴가 때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가족사진

경찰발전위원장 역임

김 대표는 2017년도, 군산경찰서 경찰발전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평소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 신망이 고려되었을 터인데 올해 6월 임기를 다할 때까지 위원들의 협력 속에 적잖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전달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과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을 비롯하여 투병생활을 하는 경찰관들을 찾아 위문활동을 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삼성애육원 후원과 노인센터 조성을 비롯하여 시모자(母子)원에는 에어컨 24대를 기증하기도 했는데 이는 두고두고 큰 보람으로 남고 있다.

최근 김 대표는 틈틈이 아내이자 가건모 대표인 장은희 씨와 자연을 찾아 꽃을 따라 다니기도 한다. 꽃차 전문가이기도 한 아내의 일을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해서 공간 김제의 야산과 금산사 주변, 군산대학교 뒤를 비롯하여 구락지로 알려진 곳을 찾아다니는 것인데 이러한 꽃 탐방으로 자연에서 얻는 심신의 힐링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의 인생 3모작은 전통차를 비롯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즐기며 사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토록 자신의 사업도, 가정의 화목도, 사회에 대한 봉사도 크게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실천하는 그를 보며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진정한 의미를 새삼 흥미하게 된다.



2017. 군산CC 연례인 자선 골프대회에서 박찬호 선수와



경찰발전위원회 바자회에서 인사말 하는 김대표



(사)가건모(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들의 모임)군산지부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장은희 씨가 운영하는 가건모는 지난 2004년도 창설된 이래 개별 가정에 대한 부모상담, 가족상담, 예비부부상담 등을 통해 각 가정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원만한 해결 방안의 도출과 지원도 펼치는 사회공동체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다는 가건모의 운영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17년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건모의 2020년도 사업계획을 장 대표로부터 들어본다.

*사업명 : 인생업! 환경업! 업사이클링프로그램을 통한 지역활동가 양성(5~12월)
-대상 : 군산시민(중장년) / 군산시 지원

*사업명 : 다문화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부부관계향상 프로젝트(8~11월)
-대상 : 군산시민(다문화가정 부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명 : 사회통합을 위한 공감+프로젝트(8~12월)
-대상 : 군산시민(1인가구, 2~3세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 행안부 지원

*사업명 : 소외계층을 위한 놀이프로그램(7~12월)
-대상 : 군산시민(장애아동, 장애우가족, 다양한 가족)
-지원활동가 : 놀이활동가 노리아띠

*사업명 : 꽃차소물리에봉사단-봉사활동(1~12월)
-대상 : 군산시민, 기관
-지원활동가 : 군산시 꽃차소물리에 봉사단

*전북대학교 전라제주권 교육지부지역센터와 협약 교육기부(1~12월)
-교육기부내용 : 놀이프로그램, 진로, 교육프로그램
-대상 : 전라남북도, 제주도 기관 도민

*상시프로그램
-상담 : 가족, 피해자, 가정폭력, 자녀양육, 예비부부
-교육 : 분노관리, 책놀이, 푸드테라피, 놀이연구

필라테스 미(Pilates Me(美))

김앤장빌딩 2F의 '필라테스 미'는 빛나 양이 원장으로 운영하는 심신수련 학원이다.

필라테스는 반복된 동작을 통해 통증 없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아랫배와 엉덩이 부분을 파워하우스(Power House)라 명명하고 이 부분을 에너지의 원천이라 여긴다.

이에 따라 모든 동작에 고유의 호흡패턴을 접목하여 운동효과의 극대화를 꾀하는데 이 파워하우스 강화를 통해 자세 교정과 구체적 근력강화로 유연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더불어 심신의 긴장을 이완시킴으로써 상해방지 및 재활효과와 심폐 능력 및 순환기 기능의 강화, 그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과정을 통해 긴장 해소와 스트레스 감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장은희 가건모 대표



필라테스 미 김빛나 원장



김앤장빌딩
그린OA, 굿샷스클럽, 포티스 힐링 승마클럽
군산시 상지곡안3길 31
T. 063)461-7559, 462-7559, 471-7559



여자라면
세 끝이 고와야죠

토탈 뷰티숍
'메리움(MARRIUM)'

안희정 대표

반영구 / 메이크업 /
속눈썹 / 네일

글 | 채명룡(편집장)
cmr0118@naver.com



네일 아트를 하는 안희정 대표



안희정 대표

“여자라면 세 끝이 고와야죠”

앵두처럼 작은 그녀의 입에서 '3가지 끝'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하마트면 웃을뻔 했다. 남자들 세계에서 흔히 '세 뿌리를 조심해라'고 하던 말과 비슷해서였을까?

뷰티샵에서 세 끝이라니... 그런데 들어보니 그녀의 '미(美)'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었고 아름다움을 창조한다는 그녀만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변방 군산에서 웬만한 고수 아니면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풍겨나왔다.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아티스트를 대하다니, 흔치 않은 만남에 조금은 가슴이 콩닥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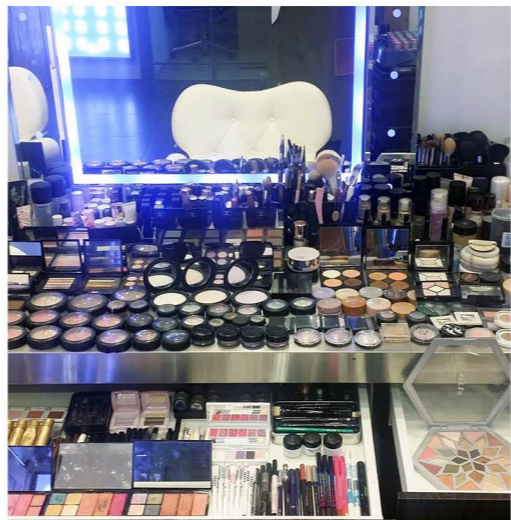
“나이가 들면 '다 늙어는데 뭘...' 하면서 포기하듯이 말하거나, 어린 사람들의 경우엔 '아직 어린데요...' 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곱게 가꾸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고, 어리다는 게 무슨 이유냐, '여자라면 머리 끝, 손 끝, 발 끝, 세 끝이 고와야 한다.'라는 말을 해주거든요.”

안희정 대표는 “아름다움은 안보이는 곳에서 더욱 세심하게 나온다.”고 했다. 자기 맵시를 항상 체크하고 안보이는 부분을 가꿔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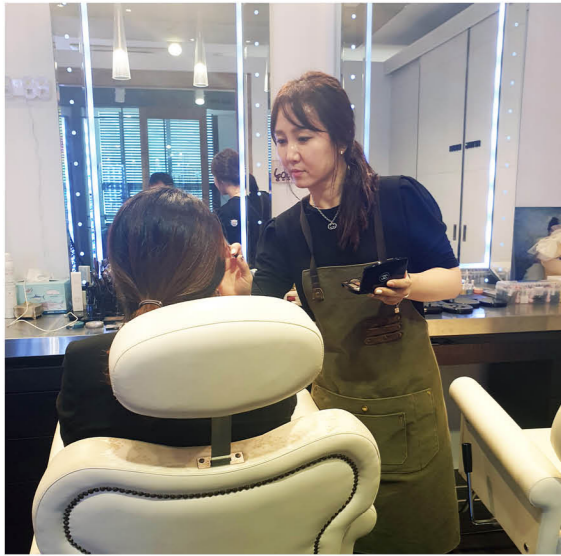
손톱과 발톱은 예쁘게 다듬어주면서 뒷꿈치의 각질이 허엿게 일어나는 걸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옥의 티' 아니겠느냐 라는 말도 했다.

“발을 예쁘게 다듬어야 샌들을 신어도 아름답잖아요. 샌들은 뒷꿈치가 드러나는데 누군가 뒤따라오다가 각질이 낀 모습을 바라본다고 생각해봐요. 아찔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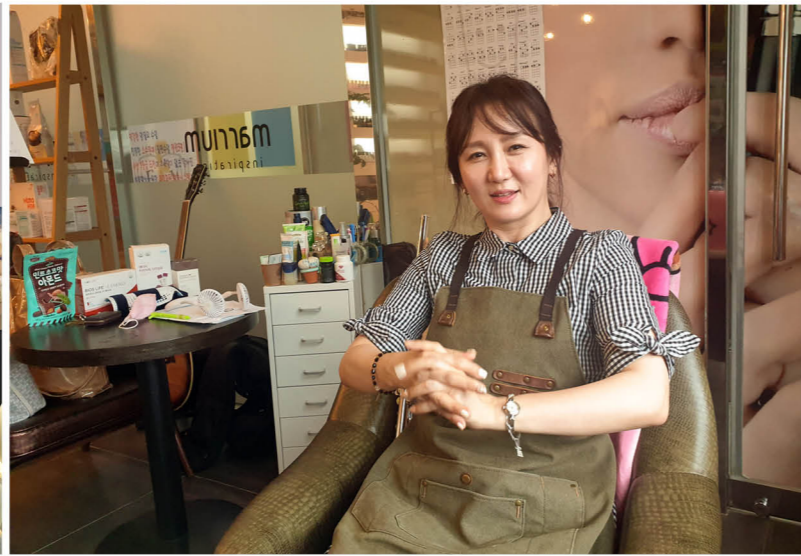
보이지 않는 부분을 곱게 만들고 갈무리된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품위가 더 높아진다는 말이다.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만들어야기에 그만큼 정성이 들어간다는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이 갔다.



메이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장비들을 갖추어야 한다



예쁘게 만들어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고객과의 피드백이 중요해요

메리움의 가격 정책은 독특하다. 눈에 띄는 게 '단골고객'에 대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이다. 예를 들면 반영구 눈썹의 경우 기본 가격이 20만원인데 메리움에 한번이라도 방문했던 고객의 경우 50% 할인을 해준다.

물에 녹아드는 수용성 제품으로 시술하기에 일년 정도 지나면 다시 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1년~2년에 한 번씩 애프터서비스를 해주는게 일반적인 관리이다. 재 방문 고객인 경우 절반의 가격으로 서비스 해주기에 부담이 없다.

네일의 경우 기본이 3만원인데 이 매장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5만원으로 정했다. 이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장식에 따라 10만원~12만원까지 올라가는 높은 요금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반영구 시술의 경우 저는 특별히 그림을 미리 그려놓지 않는 시술을 해주거든요. 일반적으로 눈썹의 모양을 그려놓고 그 안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일을 해요. 그러나 저는 메이크업 기초부터 오랜 기간 실무를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스케치 하면서 손님과 선의 굵기 음영을 조율을 하는 방법을 써요.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생 얼굴에 희미하게 드러날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퍼머먼트 메이크업에서 이어져 온게 바로 반영구 눈썹 시술인데, 이젠 군산 메리움의 주종목이 되었다.

부드럽고 연하게 하면서 최대한 그리지 않았다는 느낌이 주어지도록 하는 게 그녀만의 노하우라고 하니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희정 대표는 부산에서 메이크업 학원으로 유명한 '도도아카데미'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새색시였지만 밤잠 안자면서 1년을 악착같이 버텼고, 그 결과 졸업할 때 최우수학생으로 선발되었다.

부산의 토털샵 '메리움'의 메이크업 실장으로 첫 출발을 했다. 오늘날 군산 메리움의 시작이었던 셈이다. 혼례청이라는 전문점으로 옮겼고, 본점 팀장으로 일하면서 그녀의 실력은 일취월장했다.

"손님 명단이 들어오면 이름만 갖고 직원들에게 일을 분배하는데, 어느 날 중견 직원에게 정말 어려운 얼굴 형이 배정되었어요. 같이 일하면서 보니 마무리를 못하고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제가 나섰어요. '직원이 컨디션이 안좋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대신해드리겠습니다.'고 양해를 구했죠."

이 업계에선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 전문 샵의 책임자인 그녀가 직원의 어려움을 대신 해야했고, 그 결과가 고객분의 대만족으로 이어졌다.

"그 날 회식 자리에서 코너에 몰렸던 그 직원이 '언니, 정말 실력이 최고다. 언니가 가는 자리라면 언제든, 언제까지든 따르겠다.' 라고 고마워했어요. 어쩌면 그 때부터 나를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12년전인 2008년 2월 효심이 유별난 공무원 남편을 따라 군산에 정착했다. 시부모님이 전남 장성에 계시기에 찾아보기 수월하면서 전근 가능했던 도시를 찾았던 게 인연이다. 초등 입학 때 내려온 아들이 벌써 고3이 되었다.



눈썹 시술



가족들 메이크업



속눈썹 시술을 하려면 여기에 누워서

충남 공주가 고향인 안 대표와 전남 장성이 고향인 남편이 만나 일가를 이루었고, 부산, 인천을 거쳐 정착한 군산을 이젠 제 2의 고향으로 삼기로 했다.

"5남매였던 남편의 큰 누나가 공주의 외곽인 유구읍으로 시집와서 레코드 가게를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 감상과 글 쓰기를 좋아해서 그 가게에 자주 들렸어요. 지금의 큰 형님이 저의 어린 시절을 유심히 봐왔던 것 같아요."

농협 직원으로 일하는 그녀에게 동생이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결혼에 골인했다.

메이크업 전문가였지만 군산에서 학원·지연이 없었던 그녀는 한 때 슬럼프에 빠졌다. 지방에선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실력만큼은 자신있었기에 결혼식장이나 대형 샵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틈새 시장이 있을거라고 믿었다. 나운동 예스트몰 상가에 화장대만 두개 들여놓은 10평도 안되는 매장을 차렸다. 마음은 반짝였지만 긴 시간 고생고생했다.

"모든 경력을 접고 바닥에 한 장씩 종이를 올리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더디지만 차곡차곡 믿음을 쌓아갔지요. 양심적으로 하다보면 손님들이 진심을 알아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처음 매장을 차린지 3년만에 지금의 예스트몰 옆 2층으로 올라왔다. 매너들이 늘어났다. 10년 단골이 생겨났다. 혼잡스러운 걸 싫어하는 고객들이 많아서 1인샵으로 전환했다. 지난 인연이 소중하기에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한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인생의 절정기에 든 신부·신랑에게 메이크업을 해드리는 일이예요. 예쁘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고 예식장에 내보내는 일이 가장 보람된 일인데, 많은 감동을 느끼고 있죠."

공주 처녀와 장성 총각이 만나 아무 연고도 없는 군산에 정착했고, 삶의 흔적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기에 군산사람이 되기로 마음 먹은 이색 스토리의 주인공 안희정 대표.

샵을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눈썹처럼 메리움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기를 바람에게 전했다.

marrium(메리움)
군산시 나운안길 34 J쇼핑몰 202호
예약(063)912-9120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안희정 대표



메리움의 아름다움을 드립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은 2017년 '군산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를 결성해 경관협정을 체결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2018년 제1회 손편지 축제를 개최하며, 평범했던 거리는 '우체통거리'라는 도로명까지 얻으며 활기를 되찾았고 '우리 동네 살리기'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우체통거리에는 캐릭터 우체통과 특색 있는 경관조명, 아트월 등 조형물이 조성되어 있어 거리를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버려진 폐 우체통을 활용하자는 작은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우체통거리를 만들고 손편지 축제까지 여는 관광명소 마을이 된 것이다.

이들 주민들은 매주 거리 청결활동을 펼치며 거리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 정기회의를 통해 우체통거리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 공유하며 올해도 '제3회 손편지 축제'를 지난달 17일과 18일 양일간 우체통거리 1길에서 개최했다. 세 번째 맞이하는 손편지 축제였다.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는 2018년 '제1회 군산시간여행 손편지 축제'를 시작으로, 2019년 제2회 축제까지 '추억을 만들자'라는 주제 아래 우체통을 브랜드화하고 다양한 손편지 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축제로 성황을 이룬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군산시는 "우체통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간하는 '2020 도시재생사업 30선'에 포함되기도 했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19로 우울감과 불안감이 더해 가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을 담아 축제의 부제를 <희망을 모아요, 코로나19 극복 희망의 손편지 축제>로 정하고 안전방역 문제에 중점을 두고 즐거움과 함께 안전한 축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낙후된 도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른 '우체통 거리'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낙후된 도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2018년 6월, 비용과 행사 프로그램 등을 스스로 마련한 주민들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 화제를 모았다.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바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것으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낸 주민들. 주민의 삶 자체에 의미를 갖고 살려내는 것이 도시재생임을 그들을 통해 배운다.

세 번째 맞이한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

군산 우체통 거리는 2016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된 주민공모사업에 우체국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도란도란 공동체'가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폐 우체통을 손질하고 그림을 그려 상가 앞에 설치하면서 조성됐다.





아울러 우통거리 주민들은 이번 축제를 통해 우체통거리를 기존 '추억의 거리'에서 더 나아가 주민은 물론 시민 모두 '행복해지는 거리'로 만들어 가자는 데 중점을 두고 축제를 준비했다.

이 축제를 첫 해부터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한 우체통거리경관협의회 배학서 회장은 "우체통거리 활성화와 주민주도 축제를 기본으로 우체통거리 문화 콘텐츠를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고자 지난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임원회의와 체험프로그램 참여주민 회의를 열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이번 축제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주민들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했다"고 말했다.

손편지 축제에는 편지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버스킹 공연, 우체통모형 종이방향제 만들기, 우체통거리차 운영, 나에게 편지쓰기 타임캡슐, 통신 역사를 함께 알아보는 매직블럭 만들기, NFC칩을 활용한 말하는 우체통, 편지와 음악이 결합된 추억의 음악 DJ박스 등등 우체통거리가 연상되고 우체통거리에서만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됐다.

또 군산을 대표하는 지역상품과 먹거리,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관광객을 맞이했다.



제2회 손편지 축제

8월 30일(금) · 31일(토) 14시~21시
장소: 군산우체통거리 (군산우체국 주변)

주최: 군산시, 군산 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
주관: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추진위원회
후원: 군장대학교, 군산우체국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 거버넌스

배학서 회장은 "모든 체험프로그램이 우체통거리 주민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며, 진행하는 주민과 참여하는 시민 모두 즐거운 축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축제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올해 축제 개막식에서는 주민 거점공간인 '군산우체통거리 홍보관' 개관식도 함께 열렸다. 홍보관은 우체통거리를 홍보하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곳 또한 주민들이 만든 홍보물품들과 우체통거리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상품들이 전시 판매된다.

특히 이 홍보관 조성에는 주민들의 힘이 밑거름 됐는데 건물주가 우체통거리 활성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무상 사용토록 경관협의회에 기부한 것으로 우체통거리가 더욱 빛을 받게 됐다.

우체통거리가 지역 활성화 및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의 모범사례로 부각되며 관광객과 함께 타 시군 지자체, 기관 견학 등 벤치마킹 방문이 쇄도하고 있고, 거리 조성 후 빈 점포 감소와 함께 신규창업 점포가 늘어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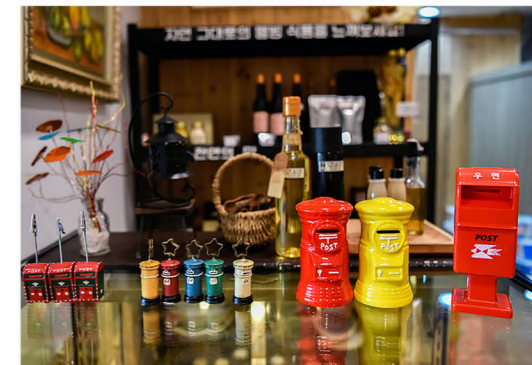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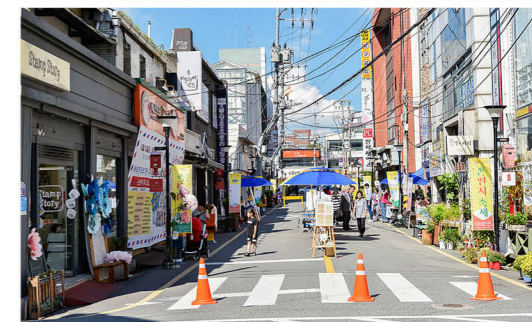


배학서 회장은 “우체통거리의 성공사례가 전국에 입소문이나면서 연간 2,000~ 4,000여명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안내하면서 지역 상가에서 식당과 찻집을 이용토록 하고 있어 주민소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사람의 번뜩이는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우체통거리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는 전국의 명소로 알려지면서 관광객과 벤치마킹되고 있다. 주민소득으로 연결돼 도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전국의 도시재생 사례 30선에 선정되기도 한 군산우체통거리는 도시재생의 가치를 공유하며 주민과 함께 협력하고 상생해 만든 결과로, 우체통거리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어 군산을 대표하는 명품거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군산우체통거리홍보관
군산우체통거리 1길
경관협정운영회장 배학서
063)443-1020



군산 우체통거리 홍보관 시설안내

군산 우체통거리에서 아래의 우체통을 찾아보세요~

| | | | | | |
|-----------------------------------------------------------------------------------------------------|---------|----------|-----------|-----------------------------------------------------|-----------|
| 3층 우체통 루프탑 | 3층 인텔리 | 3층 사랑꾼 | KBS공유극 예정 | 말러리 오락부장 | 내한구 만식이 |
| 2층 교육관 - 손편지 관련 상시 프로그램 운영 - 영상 방송교육 진행 우체통거리 문화 체험관 - 강의 및 체험 | 커피콩 미션이 | 공단이 | 교편목 철수 | 백구두 쌍갈 | 왕구슬 봉팔이 |
| 1층 우체통거리 전시관 홍보기념품 판매관 - 엽서, 열쇠고리, 스티커, 냉장고자석, 수첩, 그림책, 철보자기, 우체통모형 만들기, 패키지 등 관광상품 판매, 전시 | 오송씨개 황태 | 역고 DJ | 왕왕이 마경씨 | 인도아기씨 미미이 | 빨간스카프 꽃남이 |
| 옥외 말하는 우체통 / 소원우체통 포토존 - 우체통 캐릭터인형과 사진찍기 안전한 차없는 거리 | 여드름 남고생 | 햇님마미 여고생 | 깨구락지 순범이 | 스마트폰으로 말을 걸어보세요~ 선물을 받는 행운이 기다립니다~ - NFC를 켜세요 | |



향기로운 꿈이 피어나는 '공방 꽃향기'

스물넷 권순영 작가의 보금자리
천연염색을 이용한 작품 만들며
창의적 활동 매진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복잡하고 길다.

공예 작가가 공예품을 만든다는 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을 제작해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작업이다. 마음만 먹으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제품들을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시대 속, 이들이 만든 공예품의 가치도 올라가고 있다.

우체통거리에 위치한 '공방 꽃향기'는 스물넷 권순영 천연염색·규방공예 작가의 보금자리다. 조그만 천 쪼가리, 버려질 뻔한 소품 하나도 권 작가의 손을 거치면 스카프, 가방, 목베개, 가림막, 인형, 액세서리 등의 제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저는 색칠하는 것을 좋아해요. 종이에 그리다가 옷감에 천연염색으로 여러 가지 색을 입히고, 그 천들을 담아서 수 많은 작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지난달 13일 공방에서 만난 권순영 작가는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조심스레 다가가 무엇을 만드느냐고 물어보니 '안경집'이라고 답했다.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권 작가는 손끝으로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안경집 속에는 안경, 선글라스를 넣을 수 있어요. 안경집에 똑딱이를 만들거나, 단추구멍을 만들 거예요."

권 작가는 사람들을 직접 관찰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디자인을 생각해 세상 하나뿐인 팔찌 만들기를 좋아한다. 팔찌의 색깔과 디자인 어느 하나 똑같은 게 없다.

공방 천장에 매달린 가림막은 직접 염색한 천을 바탕으로 한뼘 한뼘 바느질해 만들었고, 옷걸이에 걸린 스카프는 꽃, 선, 나뭇잎 모양 등을 독창적인 무늬를 추가했다.

공산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권 작가가 만든 제품들은 빛을 발하고 있다. 공방 곳곳에 그녀가 만든 제품들이 가을의 밀알처럼 넉넉하다.

발달장애 2급인 권순영 작가는 2004년 미국 뉴저지로 이민을 떠나 그 곳에서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2014년 10월 귀국 후 강원도 삼척 삼무곡 자연예술학교에서 2016년까지 2년간 천연염색을 배웠고, 2017년 군산에 정착한 후 나주천연염색박물관에서 천연염색을 활용한 규방공예를 시작하게 된다. 또한 2019년에는 천연염색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2004 housing fair 1등



2006 duckstamp 3등



2013 주지사상

나는 발달장애를 가진 천연염색과 규방공예 작가 권순영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하는 것도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의 가족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려주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고, 나도 가족에게 그림으로, 색깔로 내 생각을 말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나는 색칠하는 것을 좋아해요. 종이에 그리다가 옷감에 천연염색으로 여러가지 색을 입히고, 그 천들을 다 모아서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면서 나는 자라고 있어요.

사람들은 발달장애를 가졌다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색깔을 잘 알고 내 생각을 그려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지금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잘 해낼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핑크색처럼, 우체통거리에서 꽃향기가 퍼져나가는 꿈을 이루고 싶어요.

순영이의 꽃향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2020. 7. 3
Kw



권 작가는 미국에서 Housing Fair 1(2004)등 및 Duck Stamp 3등(2006), 저지시티 주지사 특별상(2013), 한국일보 주최 한미청소년아트대회 특선 및 Duck Stamp 장려상(2014)을 수상하였고, 홍익대 가톨릭청년회관 CY시어터에서 미술전시회(2015)와 삼척시 문화창작예술장터 천연염색 작가로 참여(2016), 군산 '개복동 거리예술제' '군산 시민예술촌 아트테리토리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온 재원이다.

'공방 꽃향기'는 발달장애 사회적기업을 준비 중에 있다. 발달장애대안학교 산돌학교에서 재능 기부중인 권 작가 자신이 잘 하는 일을 가지고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연대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권 작가가 제품의 아이디어를 구상하면 친구들이 바느질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그들의 가장 순수한 꿈과 사랑이 향기가 되어 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품활동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작가 권순영의 자립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공방 꽃향기'는 권 작가가 2년여의 장애인 일자리로 모은 돈과 주위의 많은 분들이 조금씩 후원해준 돈을 모아서 열게 되었다. 그만큼 주위에서 후원하고 응원해준 힘이 있기에 홀로서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권순영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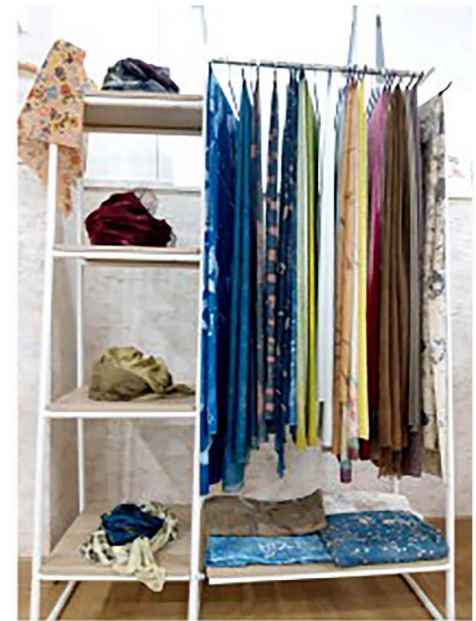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처럼 우체통거리에서 꽃 향기가 퍼져 나가는 꿈을 이루고 싶어요. 순영이의 꽃향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인 없이 황량했던 우체통 거리의 빈 건물 속의 한 공간이 권순영 작가의 공간으로 재탄생됐고, 권 작가가 직접 만든 공예품들은 공방을 꽉 채우며 이곳의 이름처럼 꽃 향기 나는 세상을 이루고 있다.

공방의 문을 나서며 공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봤다. 우리 모두 '공간'에서 의미를 찾는다. 공간은 집이 되기도 하고, 놀이터, 일터가 되기도 한다. 우체통거리의 빈 건물 중 하나가 공방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속에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사랑이 녹아 있다.

공방 꽃향기는 권순영 작가의 작업실이자 그녀가 일궈 가는 하나의 작은 세상의 의미이자 아닐까 싶었다.



부모님과 공방 꽃향기에서



군산거리예술제

“꿈은 이상이 아니라 항상 곁에 있습니다”

미가엘 실용음악 연기학원
한동현 원장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문화동 현대코아빌딩 2층과 4층, 500여 평, 학원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상당한 <미가엘 실용음악 연기학원>의 한동현 원장은 자신이 좋아하는 기타음악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음악인이자 교육자이다. 자신과 같은 학생들을 위해 실용음악 학원을 설립한 후 10년이 지난 뒤 그는 군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실용음악 연기학원을 운영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에 한 원장을 만나 그가 추구하는 음악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기타 강사에서 대규모 학원장까지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과 같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은 음악적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에 어려운 위치에 서있다.

1991년 기타 강사를 시작하면서 음악학원에 대한 꿈을 키워온 한동현 원장은 군산에 살면서 음악이라는 길을 쉽게 접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자신과 같은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군산의 아이들이 대학입시에 응시도 하고, 서울의 유명 기획사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미가엘 실용음악 연기학원>을 설립했다.

한 원장은 실용음악 연기학원은 특성상 개인레슨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일정수준일 때 수지타산이 맞다고 했지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점차 분야와 규모를 늘려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북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음악 학원이 되었다고 한 원장은 덧붙여 말했다.

“군산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교육적으로 소외받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의 후학들을 위해 모든 예술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학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그는 현재 기타, 드럼 등 개인 레슨 실을 비롯해 공연장과 댄스연습실, 방송 녹음실 등 500여 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도하는 교사만도 2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군산은 실용음악이 열악해?

실용음악을 하는 학생이나 부모들 사이에 군산은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열악해 입시에 어려움이 많다고들 합니다. 이를 잘못된 정보라고 한 원장은 강하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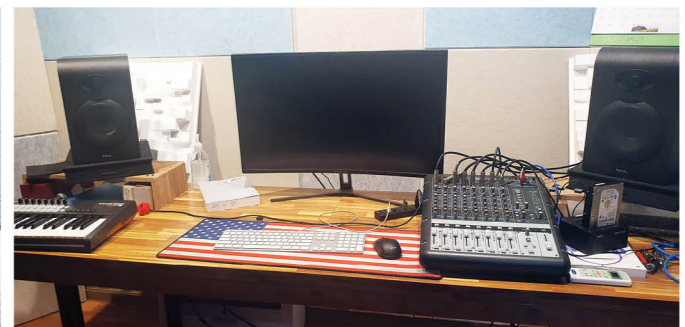
군산은 실용음악 입시체계가 열악해 입시하려면 군산은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다수의 학생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전주나 서울 등지로 입시를 장거리로 다니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최근 3년간 입시 결과를 보면 <미가엘 실용음악 연기학원>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

한 원장은 매년 실용음악 입시설명회를 개최해 그간 학원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들의 대학진학 현황을 설명하고 군이 서울로 가서 준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본 학원에서 수학한 다수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은 물론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 음대 기타 입시를 비롯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노트르담 콘서바토리 EDM 시험에 응시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이 학생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밤 12시가 넘어서도 연습하느라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연습실을 나서던 학생들, 주말에도 학원 열쇠를 받아서 종일 연습실에 있던 학생들이 좋은 성적이나 올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인성은 음악의 첫걸음

엄격한 도제식 개인 레슨과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한 원장은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는 인성이 바로잡혀야 된다고 말한다. 그는 3번의 무단결석한 학생에게는 가차 없이 퇴원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프로 음악 세계에서 안일한 자세와 근성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이 한 원장의 주장이다.





음악은 인성이 부족하면 배우기 힘든 학문이고, 공부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분야이다. 물론 지식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지성은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한 원장의 주장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교육하는 한 원장은 자폐이라고 해서 음악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많은 학원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기피하고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든 그는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욱 뛰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자폐를 갖고 있던 학생들도 음악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아이들도 진학하기 힘든 음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기도 합니다.”라고 말하는 한 원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으로 자폐 기타리스트 이상현 군을 꼽았다.

“음악을 배우는 것은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한 것”

“부모들은 아이의 꿈을 선불리 정하며 평범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의 진정한 꿈이 아니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기 못합니다.”라고 한동현 원장은 말한다.

그는 학부모들이 아이의 꿈과 희망을 무시하면서 성적을 기준으로 대학을 보내는 상태에 대해 걱정했다. 결국 대학 졸업 후 방황하다가 취업현장으로 내몰린다는 것이 한 원장의 주장이다. 때문에 그는 학부모들에게 항상 아이와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기를 부탁했다. 부모님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아이의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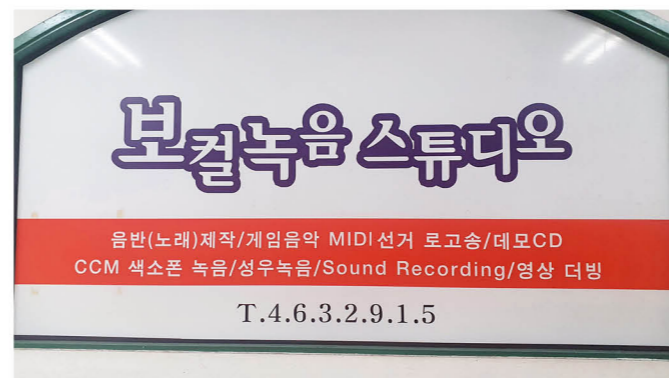
그는 음악이란 소리 음(音)에 즐거움 락(樂)이라고 했다. 그러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배워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어린 아이들은 타악기같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배우고 싶은 악기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한 원장은 학교 음악 성적을 높이기 위해 음악학원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 또는 꿈을 찾기 위해 음악을 배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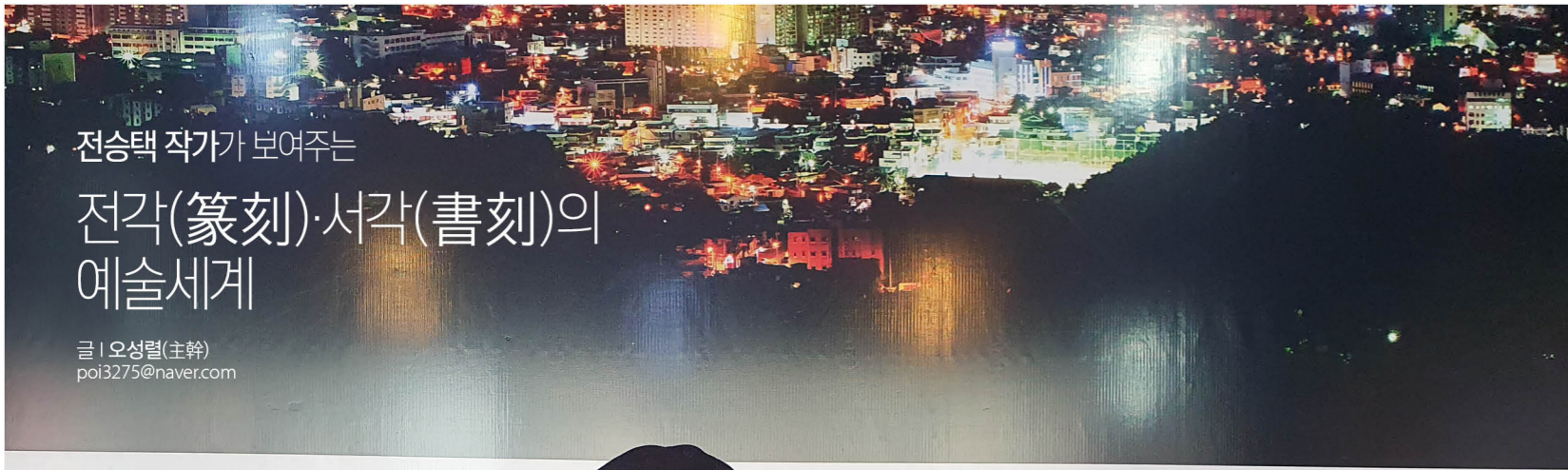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기회가 왔을 때 잡고 싶다면 자신을 그 것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한 원장은 음악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고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충고했다. 현재 군산지역에서 청소년지원센터와 복지센터 등에서 청소년들의 음악교육과 공연을 위탁받아 복지차원에서 진행한다는 한 원장은 아직도 자신의 길 같은 멀다고 밝혔다.

소외받는 청소년기 아이들의 희망을 주기위해 복지정책을 도입한 학원 시스템 구축과 실용음악과 방송연예를 접목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동현 원장, 성공보다는 나눔을 꿈꾸고 있는 그의 앞날에 언제나 즐거운 음악이 함께하기를 바라본다.

미가엘 실용음악연기학원
원장 한동현
전북 군산시 나운로 4 현대코아빌딩 201호
063)471-7181





전승택 작가가 보여주는
전각(篆刻)·서각(書刻)의
예술세계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찰서

세관감시소

군산에서 태어나 중앙고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떠났던 전승택. 치기 어린 흥안의 소년이었다. 그가 37년 만에 전각(篆刻)·서각(書刻)분야의 독보적 경지를 일군 대작가가 되어 고향을 찾아 개인전을 갖는다. 필자의 과문함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간 군산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작가나 전시회가 없어 이번의 개인전이 최초가 아닌가 하는데, 도록을 통해서 본 그의 작품들은 기존 작가들과는 사뭇 다른 자유분방함과 독창성이 도드라져 보인다. 이 점에 대해 전 작가는 답습을 기피하고자 특징인을 사사하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혼으로 천착했다고 들려주는데 그간 수많은 국내 전시를 통해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적잖은 인맥을 쌓은 것으로도 알려지는 그를 시내 모처에서 만나 전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군산 최초 전각, 서각 개인전을 갖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에 관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전시는 그동안의 작품들과 어청도를 비롯하여 새롭게 작업한 작품 약 70여점을 선보이는 것으로 8월4일부터 9월6일까지 '우두(牛頭)머리'라는 제하에 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백두산의 우리말 이름은 소머리산으로서 우리 한민족은 이를 우두(牛頭)머리라 칭해 왔지요.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우두머리의 DNA가 면면히 흐르고 있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세계를 선도하는 문명국의 리더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또한 우두머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정했는데, 우두(牛頭)머리, 청빈락도(淸貧樂道), 미재생명(美在生命), 웃음, 삶 등의 다섯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전각, 서각은 언제부터 공부하신 건가요.

사실 제 전공은 영문학으로서 단국대 대학원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91년도). 영문학을 하면서 희곡과 영미 현대연극학 공부에 심취했고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총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테니스 윌리엄스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요. 2014년도 전주서예비엔날레에서는 총연출을 맡은 적도 있습니다.

전각과 서각은 20년 전 무대연출가로 활동하면서 큰 관심을 갖게 되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각은 전서체(篆書體)로 글자를 새기는 예술장르로서 동양예술의 극치랄 수 있는데 무엇보다 공간에 대한 인지력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또한 서각은 나무나 뿔 등에 글자를 새기는 예술을 일컫는데 한·중·일 3국 중 한국의 전, 서각이 단연 독보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용노 화백의 경우 전, 서각을 회화에 접목시킴으로서 프랑스에서 작위를 받은 것에서도 입증될 정도니까요.



그간 전시 경력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전시회만 꼽는다면 최북미술관 초대전, 롯데호텔 갤러리 초대전, 경복궁 메트로갤러리 초대전을 비롯하여 3.1운동 100주년 독립기념관 초대전, 중국 상해임시정부 100주년 초대전, 국회대강당에서의 봉오동전투 99주년 기념전시 등을 들 수 있고, 상설전시는 우당 이회영 기념관, 여천 흥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바오밥식물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 기업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바오밥식물원의 서각작품 간판은 그 글자체도 제가 창안한 것으로 붓이 지나간 획이 드러나게 써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연상케 함으로써 예술적 가치는 물론 그 크기 면에서도 세계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며, 5톤 나무에 새긴 고래와 호랑이는 저의 출세작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37년만의 고향 전시를 앞두고 감회가 남다른 법도 한데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저도 타지에서 살면서도 늘 회향(回鄕)을 꿈꿔왔습니다. 이제 고향을 떠난 지 37년 만에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운 마음에 바쁜 일상에서도 작가로서 작품을 통해 고향사람들과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마치 큰 숙제처럼 응어리져 있던 차 마침 고향 선후배, 친우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개인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전, 서각의 예술세계를 알리고 더 나아가 군산의 역사와 자연, 인물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작품에 담아 군산을 널리 알리는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시 이후에 한두 곳 정도 전시계획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의 전시에 어려움로 격려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 출신 한국 화단의 거장인 최예태 화백께서도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아래와 같은 친필 메시지를 보내 주셨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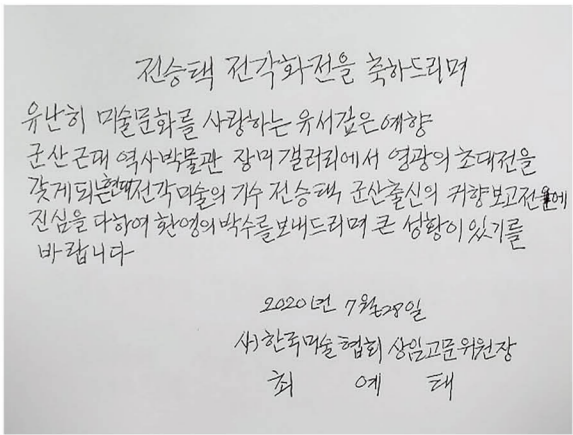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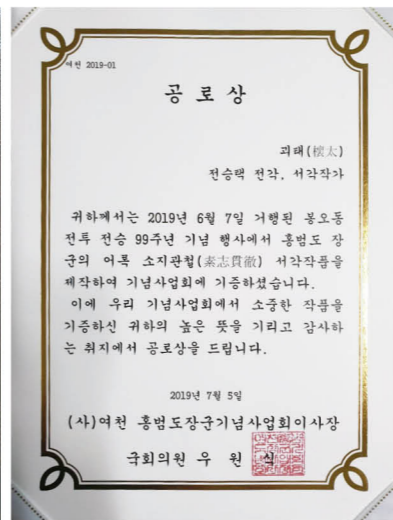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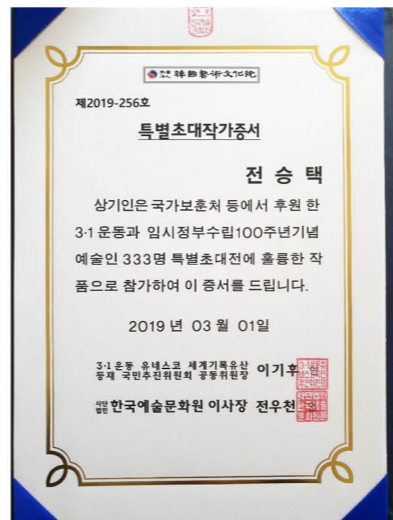
“전승택 전각화전을 축하드리며”
유난히 미술문화를 사랑하는 유서 깊은 예향 군산의 근대역사 박물관 장미갤러리에서 영광의 개인전을 갖게 된 현대 전각서각 미술의 기수 군산출신의 전승택 귀향 보고 전시회에 진심을 다하여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큰 성황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 2020. 7. 29.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위원장 최예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어떻게 아셨는지 이런 메시지를 보내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화백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향에서의 첫 전시회니만치 기대 반, 설렘 반 심경이시겠군요. 아무튼 이번 전시가 시민들에게 전각과 서각의 예술세계를 소개함으로써 건문의 폭을 넓혀 군산의 문화예술 수준을 더욱 탄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시 축하드리고 꼭 성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전시 준비로 고향을 찾아 새롭게 느낀 것은 스치듯 지나가듯 잠깐 동안 외출한 기분으로 찾아왔을 때와는 무언가 다름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고향땅의 냄새와 하늘의 품이 이토록 아름답고 강렬함을 이제야 느껴봅니다. 고향에서의 첫 개인전이니만큼 실망시켜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작가 연락처
010-4373-3057



전시장에서 작품설명 중인 전 작가(맨 우측)

우원식 국회의원과



군산유일의 누룽지 ‘사람사랑누룽지’

“누룽지로 쌀 소비 촉진 붐 일으킬 것”

하늘땅영농조합법인
이길로 대표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면서, 쌀을 중심으로 한 튼튼한 식량안보 체계의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쌀 산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재고 누적과 소비 감소, 수입개방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이 있다.

맛과 영양 뛰어난 쌀 가공제품 ‘사람사랑 누룽지’

“쌀 소비는 이 누룽지만한 게 없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이가 즐길 수 있고, 최근 가정 소비량이 늘어나 온라인 주문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산 회현면의 넓은 들녘에 자리한 ‘하늘땅영농조합법인’ 이길로 대표는 우리 땅에서 키워 우리 땀방울로 만들어진 조상 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먹거리인 쌀을 주원료로 2차 가공해 누룽지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매년 자경해 생산한 1년 미만의 100% 국내산 나락을 도정해 만든 햅쌀을 재료로 일체 첨가물 없이 맛과 영양분이 매우 뛰어난 웰빙푸드인 자체 브랜드로 개발한 ‘사람사랑 누룽지’가 쌀 가공제품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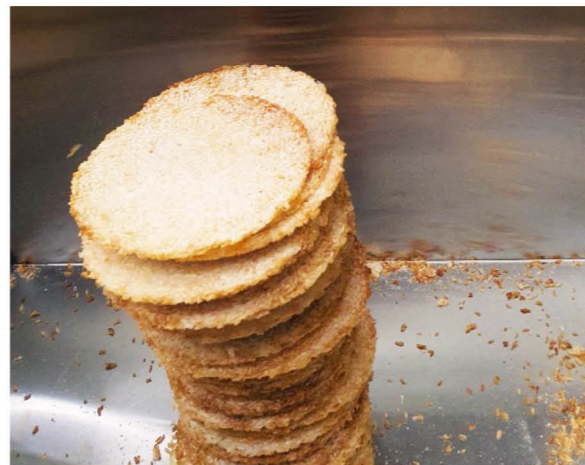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를 판매하는 회사로 정직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올해 해법

(HACCP) 인증된 위생적이고 깨끗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화학 첨가물이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객들이 원하는 맛과 영양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누룽지 공장이 위치한 군산 회현면은 군산과 전북 김제지역을 잇는 중요한 통로로 특히 만경 강변에 위치한 총적 평야와 해안 간척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은 ‘옥토 진미’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길로 대표가 생산하는 쌀 품종은 ‘신동진’으로 보리, 밀, 맥주보리, 콩, 귀리 등 잡곡을 1차 생산하고, 2차 가공제품으로 일반 누룽지와 현미 누룽지에 이어 최근에는 찹쌀 누룽지가 지 곡물 가공류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가격은 일반 누룽지에 중상 정도 온라인상에서 3,900~4,900원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맛이 고소하면서도 바삭거리는 식감으로 반응이 뜨겁다. 사람사랑 누룽지는 무첨가제, 무방부제, 무색소 등 3무를 지향하고 있다. 이길로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안심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만든다는 원칙을 세웠다.

설탕과 소금을 넣지 않고, 밀가루를 섞지도 않고 기름으로 튀기지도 않는다. 편식이 심한 아이도, 성장기 청소년도, 입맛이 없어진 어르신도, 불규칙한 식단의 현대 직장인까지 사람사랑햅쌀누룽지는 모두에게 건강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낮은 칼로리의 최고의 다이어트 음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번 맛을 본 소비자들이 지속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라 미가 아닌 정성 들여 키운 햅쌀과 잡곡을 쓰기 때문에 품질과 맛이 뛰어난 입소문을 타고 있어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전북도·군산시 자금지원 등 큰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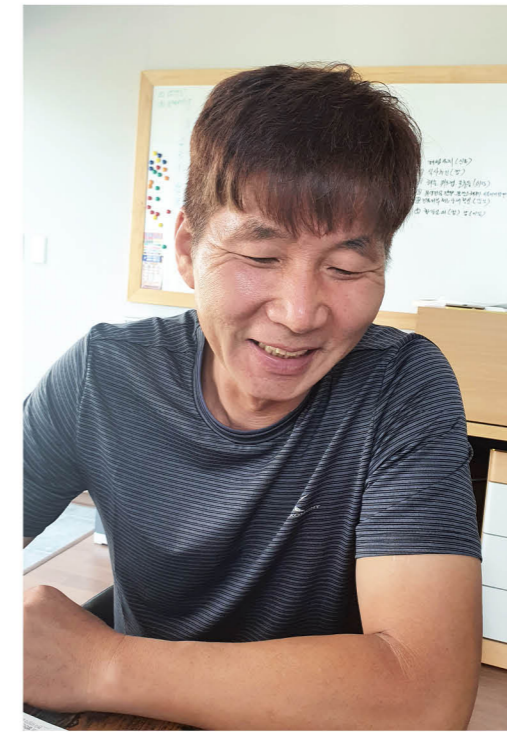
하늘땅영농조합법인은 들녘경영체를 조직해 공동 육묘와 공동방제 등 100ha의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들녘경영체 1차 연도 사업추진으로 교육, 컨설팅 후 시설, 장비와 함께 2017년 총사업비 1억 300만 원을 들여 들녘경영체 3차연도 사업 다각화 누룽지 가공장이 추진돼 2019년 누룽지 공장이 준공됐다.

현재는 누룽지 공장에서 가동 중인 1호기 생산라인에서 하루에 600kg 쌀을 소비해 누룽지를 생산하지만, 소비가 늘어 3호기까지 들어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들녘경영체 공동생산 쌀도 연간 400톤 정도 공급해 쌀 수 있게 된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들녘경영체에서 3차까지 컨설팅 교육을 받고 쌀 가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며 쌀과 연관된 다각화 사업을 구상하던 이 대표는 당시 누룽지를 가공하면 쌀 소비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했다.

그래서 1호기 라인을 들인 후 공장용지를 확보해 3호기까지 생산라인을 증설할 준비도 이미 마친 상태다. 이 대표는 농식품부와 전라북도, 군산시로부터 시설자금과 공장부지 등 초기 비용 11억 5천여만 원 중 8억 원을 지원받고 자부담을 보태 큰 어려움 없이 쌀 가공식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소비 창출과 수출 등을 통해 쌀 가공제품의 소비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하기 위해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와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등 융자 지원도 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실험 끝에 황금비율 찾아내

이길로 대표는 누룽지가 처음부터 맛과 영양이 뛰어난 배합이 아니었다고 했다. 밥을 해서 다시 씻고, 15분간 건조를 시켜 기계에 넣으면 맛이 없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기계회사에서도 간단한 매뉴얼만 주었을 뿐 상품화의 맛 개발은 이 대표의 몫이었다.

절묘한 가스 불의 세기와 물의 양, 밥알의 탱글 탱글함 등 모든 조건을 섬세하게 가다듬으며, 황금비율을 찾아내는 작업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테스트하며 버린 쌀도 몇 톤쯤 된다고 전했다. 조금만 덜 익거나 더 구워져도 균일하지 않아 수천 번 실험을 통해 지금의 맛과 균형적인 영양, 바삭거림의 식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이제는 오투기 같은 대형 식품회사에서도 샘플을 보내 달라고 요구해 와 누룽지 샘플을 보내놓은 상태라고 했다. 해섭인 증 시설에서 안정적인 생산과 균형적인 맛과 품질이 보장돼 PB상품 납품의 길도 열려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고정 고객들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소비 수요층이 확보되면 판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룽지 판로 개척이 관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길로 대표는 대량 납품처를 2~3곳 확보하면 안정적으로 안착이 될 것으로 보고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다. 또한 납품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군납 또한 계획해 판로를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유통을 비롯해 신세대를 겨냥한 ‘오픈 마켓’과 ‘소셜미디어’ 등 유통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찹쌀을 이용한 제품과 보리, 밀, 콩 등 다양한 곡물과 소포장 등 새로운 디자인으로 신제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길로 대표는 “쌀 가공산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영세한 기업이 하기 어려운 R&D 투자와 재정 및 세제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늘땅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정착하고 풍요로운 외식문화를 위해 첫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낯은 것은 파괴하며 쌀 산업 소비문화를 재창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늘땅영농조합법인
대표 이길로
전북 군산시 회현면 증석길 135
063)468-9947

‘한 우물만 파라는 것은 옛말’ 다양한 자격증, 보람찬 인생

채재승 강사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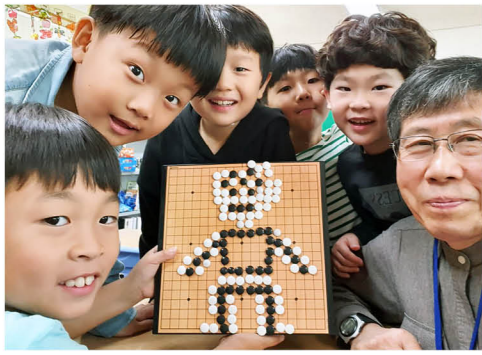
고우당에서

채재승 강사(63),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받았지만 그를 어떤 명칭으로 불러야 할지 난감했다.

어린이 중국어 지도사, 아동 한자 지도사, 바둑 3급 지도사(아마5단),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 다문화 가족 복지사, 심리상담사, 한자 3급 지도사, 학교폭력 예방상담사, 진로적성 상담사, 방과후 학교지도사, 문화재해설사, 버스 및 택시 운전자격 취득, 탁구 공인2급 심판, 바둑심판자격 및 심사위원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15개 이상의 자격증과 면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부친의 직장 따라 충남 대천을 거쳐 장항으로 이주, 군산에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는 중국어통역을 전공한 채재승 강사는 젊은 시절 삼성 근무만 23년 경력이다. 전주제지를 거쳐 삼성그룹에서 분리되어 한솔그룹으로 바뀐 한솔제지 근무 시에는 인사 및 노사관리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던 그는 2002년 회사 퇴직 후 지역 기업체인 명지토건, 월명유람선 관리이사 등의 직장생활을 끝으로 2015년 퇴사와 동시 새로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는다.





즐기는 일이 직업이 된 인생 후반기

그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꾸준한 자기계발과 함께 언젠가 퇴직하게 될 이후의 삶을 차분히 준비해왔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청소년기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컸던 관계로 중국어와 한자, 그리고 두뇌스포츠로 알려진 바둑을 가르치고 싶어 자격증을 취득하다보니 어느덧 15개 분야에 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은퇴 이후 평소의 소망을 하나하나 실현해가고 있는 중으로서 산북초등학교에서 1년 반 정도 방과 후 중국어 강사로 활동했으며, 군산여상에서는 학생들 취업지도지원업무(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요령 등)를 수행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대한바둑협회 바둑강사로 위촉된 그는 예품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는가 하면 작년에는 백두산 지역아동센터와 군산대 평생교육원에서 바둑교수로 일반인 대상 바둑 지도를 하는 한편 미장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바둑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또한 군산시에서 주관하는 동네문화카페에서의 중국어 강의와, 일제강점기 군산의 근대역사문화재와 관련하여 신흥동 일본식가옥 등에서 해설사로 활동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듯 그의 다양한 활동 이면에는 이타자리(利他自利)의 철학이 깃들여 있다.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라는 이 말은 평소 그의 품성과 활동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평소 아이들을 가르치며 경험했던 것을 살리고 보완하면서 갈고 닦은 지식을



드럼 연주 중인 채강사



프랑스 여행 중 부인과

아이들에게 전달하면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한 가지 마음뿐이다. 젊어서는 수입을 위해 다른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 그에게 있어 삶의 행복과 기쁨은 모든 세속적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즐기는 것이다.

따라서 바둑 방과 후 수업과 관련하여 제1회 군산시 스포츠 클럽 회장배 바둑대회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처음 출전하여 꿈나무 B조에서 우승과 준우승, 꿈나무 A조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한데서 그의 지도 실력이 입증되거나, 이 밖에도 군산시 외국어통역봉사단 활동, 2008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 중국어통역 자원봉사, 2009 군산시 생활체육 탁구 대표선수, 바둑·테니스·탁구대회 수회 입상, 3Km 장거리 수영대회 총6회(바다수영3회) 참가 완영, 7기회 동아국제마라톤대회 하프코스 수회 완주를 비롯하여 노인대학에서의 탁구 지도 등 그의 왕성한 열정이 놀라기만 하다.

그런가하면 사랑의 장기기증(등록번호001995)서약에도 일찍이 동참했고, 아직도 청소년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더 폭넓은 분야를 찾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는 그에게서 진정한 삶의 여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행복은 재물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일, 그것이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채재승 강사야 말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구가하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한다.

채재승 강사
010-4452-3657



일본식가옥 문화재 해설



일본식가옥에서 필자와





대한민국 풍력산업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김태환 공장장

‘훨~훨~ 날아보자’, 휴먼컴퍼지트 김태환 공장장

국내 유일의 풍력발전기 날개 제작 전문기업

글 | 채명룡(편집장)
cmr0118@naver.com

“요즘 뜨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기업이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잘 견뎌야지요. 군산 산업단지의 갈 길이 멀지만 우리 화시의 경우 내일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블레이드 전문업체 휴먼컴퍼지트의 김태환 공장장은 “고생은 이제 그만, 훨훨 날아 봐야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블레이드를 제작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업인 이 회사는 복합소재를 이용하여 잠수함, 자동차 휠 등 경량화된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특성화된 기업이다. 일감이 없다는 군장 국가산업단지의 한 가운데 자리 잡은 군산공장 현장 직원들의 바쁜 움직임이 도약하는 기업의 오늘을 말해주고 있다.

“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과 함께 주력 사업으로 꼽히는 풍력발전은 전망이 밝습니다. 다만 사업의 사이클이 길기에 눈앞에서 확확 달라지는 게 보이지 않아 답답한 면이 있지요. 시간 문제이지 우리 기업의 상황이 우수하다는 건 변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블레이드 대형화 계획 성공리에 추진

휴먼컴퍼지트 군산공장에서는 블레이드 대형화 계획이 성공리에 진행 중이다. 3MW 발전용인 65미터짜리 날개를 양산하고 있으며, 5MW 발전용 68미터짜리가 개발 완료되었다.

8MW 발전이 가능한 100미터짜리도 개발 중인데, 앞으로는 이 크기가 주력이 될 것 같다는 진단이다. 날개 제작 전문이기에 풍력발전 사업의 대형화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도 땀을 흘리고 있다.

“전라북도도와 군산시에서 새만금 내측에 1기기의 시범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을 했었던 걸로 압니다. 새만금풍력(주)에서 주도하는 이 사업의 단지가 확정되면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새만금에 내부에 풍력이 세워진다면 서남해 해상풍력과 함께 시너지를 내게 되어 상당히

전망이 밝은 사업으로 성장할 겁니다.”

부안 앞바다에 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는데 이미 수중 기초공사와 터빈까지 완료되었고, 이 회사는 블레이드를 만들어 공사 일정에 따라 군산항 6부두 컨테이너 터미널을 통해서 현장으로 보내고 있다.

이미 날개 51셋트를 완성해서 서남해 해상풍력에 납품하는 중이며 추가로 6셋트를 생산하는 중이다. 현장 직원들이 전부 달라붙는다 하여도 대형 블레이드 한 개를 만드는 데 일주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3년치 일감은 확보되었다.

해상풍력사업의 걸림돌은 민원 해소

풍력사업의 실증 단지가 구성되려면 해당 사업지구 주민들의 민원을 헤쳐 나가는 과정이 어렵다. 실증단지 조성 과정에서 민원의 양 주체가 주장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엇갈리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에 이해하기 어렵고 민원해소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이 어렵게 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벌써 3단계 사업까지 진행되어야 하는데 1단계 사업에서 중단된 상태이다.



작업 현장 점검하는 김태환 공장장

“풍력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사업성도 좋지만 사업 기간이 긴 단점을 견뎌야 합니다. 태양광에 비해 투자비가 4배 이상 들어가는데, 예를 들자면 3MW의 경우 해상기초와 블레이드 등 시설비만 약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2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국내 대단지로서 남해상풍력과 제주에 일부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도와 전남 일부 등에서 산악형 풍력사업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다. 새만금 내부 풍력발전 계획도 민원 등의 문제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휴먼컴퍼지트는 올해 제주도 김녕 단지에 만들어지는 풍력사업단지에 블레이드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외 사업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의 경우 육상 풍력은 강원도 태백 영덕 등에, 해상 풍력은 서남해안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다. 휴먼컴퍼지트의 사업 전망이 밝은 이유이다.

해상풍력은 서남해안을 춤추게 만드는 자산

전북과 군산지역이 앞으로 해상풍력 사업의 중심이 될 거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 김 공장장은 “지난 2018년의 경우 연간 매출이 급성장했는데, 임대공장에서 자가 공장을 확보하고 지금 추세대로 사업물량이 뒤따라준다면 급격하게 매출 신장세가 더욱 커지리라고 본다.”고 했다.



블레이드 제작 현장의 직원들



블레이드 제작현장에서 일류기업을 외치는 김태환 공장장



블레이드 내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러나 지역적인 한계와 유행처럼 휩쓸고 있는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사업 바람에 대해서는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요즘 보면, 고군산에 케이블카도 놓고 섬과 섬을 연결하는 바다에 풍력발전 타워를 만들겠다는 사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때의 유행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풍력사업을 한다는 분들이 풍력에 대해 세밀하게 알고 나서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는 또 지역기업을 위한 정책 배려도 중요하다고 했다. 서남해상풍력 1단계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타워공사는 전남 여수의 업체에서 했는데, 이 지역에 수중 공사부터 타워까지 모두 이뤄지는 걸 감안한다면 당연히 이 지역 업체에서 주도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 영암의 월출산에 풍력을 설치했어요. 전남은 민원을 처리해 나가는 의지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풍력발전은 비슷한 민원인데, 전남의 국립공원 지역에서 이를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 보면서 전북지역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블레이드 개발 제작에서 수리 보수까지 전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휴먼컴퍼지트. 군산 1공장과 2공장, 그리고 협력회사 직원을 합쳐 120명이 일하는 이 회사는 1만5천평 넓이의 공장으로 넓혀 추가 주문에 대응할 계획이다.

사원주주 회사, 두산중공업과 파트너십

휴먼컴퍼지트는 사원주주 회사로 새롭게 출범했다. 유일하게 풍력 발전기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는 두산중공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내수 부문에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산학 협력도 돈독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군산대와의 연인이 깊지는 않지만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복합 소재 관련 R&D사업을 함께 하여왔다. 풍력 사업과 관련한 복합소재 물성시험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종업원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높다. 국내 유일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3년 먹거리는 있다.’고 했다.

해외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해상풍력 시범 단지가 잘 운영되고 그제 실증 단지로 이어지면 해상풍력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다. 발전 사업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및 관광 사업까지 확장성이 있는 해상풍력의 꽃 ‘블레이드’가 훨~ 훨~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

(주)휴먼컴퍼지트
 군산시 자유무역로152(오식도동 852-16)
 (063)730-7740



정치인의 모습보다는 아직 때 묻지 않은 선한 학자의 인상을 풍기는 최창호 시의원은 'R&D' 지도사이다. R&D(Research and Development)라는 경제용어가 있다. 우리말로 쉽게 풀어보면 '연구개발'이라는 뜻으로, 산업,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의 축적 분을 늘리고 그것을 응용하고 활용하여 창조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활동이다.

최 의원은 최근 군산에서 공장가동 중단과 폐쇄 등 잇따라 대기업들이 철수하는 모습을 보며 그 폐해에 대해 단호하게 말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의합니다만,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적, 비용적 특혜와 혜택.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업 논리에 의해 냉정하게 철수하는 그들을 우리는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 R&D 방안으로 <문화산업화 전략>을 제안해 봅니다. 전북대학교 정지영 교수님께서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를 '특정 공동체가 그것의 특정한 문화적, 지리적 환경에 기초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변화시키고 그것의 구성원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도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 역사, 인문, 지리,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자원을 서로 결합하여 유일한 문화로 만들어,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으로 발전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봄이 오면 은파호수공원과 월명공원, 월명체육관 일대에 아름다운 벚꽃이 필니다. 벚꽃 구경도 하고 벚꽃을 이용한 막걸리, 청주, 음료수, 화장품, 비누, 향수, 샴푸 등등 관광상품과 관광코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군산의 모든 것들이 제품과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R&D는 우리의 일상 자체입니다. 상업적이든 공익적이든 여러분의 생각과 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협회와 한국기술개발협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문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수송동 시의원 보궐선거 당선자

우리 동네 전문가,
최창호 시의원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소상공인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문컨설팅 지원
“제가 가진 재능을 주민을 위해 발휘하고 싶습니다.”

지난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군산시 바 선거구(수송동, 미장동, 지곡동)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창호(49세) 시의원을 만나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들어봤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해 주시고 압도적인 지지로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큰 성원과 기대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침체되어 가는 군산경제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불편의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일 해보고 싶다는 최창호 시의원의 의지처럼 남들보다 짧은 2년간의 의정활동이지만 요즘 최 의원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망가진 하수구 덮개를 교체해 달라, 보행에 방해가 되는 가로수를 처리해 달라, 불법 주차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 초등학교 앞 과속 및 주·정차 단속, 경포천 악취문제와 벌레 발생 방지대책 요구, 주거밀집 지역과 핵심상권의 주차 문제, 차량털이와 바리맨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등등.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해결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라서 시민들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성취감도 느끼고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의정활동 3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가장 힘든 것은 시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입니다. 어느 분은 주차를 반대하시고 어느 분은 허용하라 하시고, 단속 감시장비 등 설치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있으시고.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하시고, 또 의회와 행정과의 이해관계, 지역구 사업을 바라보는 의원간 이해관계 등 알고 보면 우리는 다 같은 이웃들인데 서로 양보하고 이해했으면 합니다. 의원직이라는 게 정신적 노동강도가 그 누구보다도 센 것 같다”고 말한다.

최 의원은 멈춰버린 현대조선소, 한국GM 폐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이퍼코리아, OCI, 세아베스틸,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군산시민들은 사회적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잘 견뎌내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제는, 여러분 힘내세요! 라는 말이 그저 구호로만 생각이 든다며 비판만 하기보다는 대안과 비전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창호 시의원은 군산남초와 군산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전북대에서 무역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군산시 소상공인협회 자문위원과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이사, 군산시 축구협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군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군산중소기업 R&D 지원 특별위원장과 군산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사, (사)한국기술개발협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창호 시의원
010-7176-9900



또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자금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제도를 마련하고, 마케팅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우리가게 홍보 지원사업’ 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창호 의원은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해 ‘숨쉬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한다. 경포천에 마을 숲을 조성하고 시립도서관 옆 ‘맘껏 광장’에 어린이를 위한 상설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용주차장 설치와 관공서와 종교시설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사회적 약자와 장애 이웃들을 위해서 로컬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고, 이들이 자립적 경제 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 대응으로 공공 요양병원을 연구하고 있다고도 한다.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와 청소년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지원과 보살핌 시설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우와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용이라는 관점보다는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교육 분야에 대한 의지도 밝히고 있다. “입시와 경쟁의 교육보다는 군산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번은 아쉽지만, 다음 공모에 국립과 학관을 유치하고 그와 연계해서 교육과 관광이 결합하는 전략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년, 활기찬 인생!’

공익활동 지원사업
수행 전문기관

(사)효림복지센터

글 | 최승호(자유기고가)
gsport11@naver.com

필자가 (사)효림복지센터(이사장 최정태, 이하 센터)를 찾은 날은 지난 7월 28일, 장대비가 잠시 멈추고 이슬비가 내리는 여름 무더위를 느낄 수 없는 선선한 날이었다. 군산시 개복동 옛 전화국 건물 옆 골목길에 소재한 센터는 과거 ‘르네상스’라는 영화관이 있어 옛 추억이 떠오르는 친근함이 배어있는 건물 1층에 자리를 잡고 있다.

센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첫째, 노인의 권익 신장과 시니어 세대 일자리 제공, 둘째,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 및 관련 교육사업, 셋째,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넷째, 노인복지 및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한 사회적 연대인식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수탁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창립총회를 하고 2017년 1월에 설립된 법인이다.

설립 직후 센터는 ‘공익형 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2020년 현재까지 16명의 임원과 상근직원 10명과 함께 만 65세 이상 약 1,50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의 이름인 ‘효림’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효림의 의미와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먼저 ‘노인 일자리사업’ 현황과 효과 등에 대해 윤남섭 센터장께 물었다.

“효림(孝琴)은 한자어 뜻 그대로 효도할 ‘효(孝)’와 나뭇가지 무성할 ‘림(欐)’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지극 정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우리 센터가 추구하는 노인복지사업의 핵심가치이자 일종의 사훈(史訓) 같은 개념입니다”라고 말한다.

센터가 개관하고 첫 사업으로 2017년도 상반기에 어르신 130여 명을 모집하여 노노(老老) 케어, 사서 도우미, 환경생태 관리원 부분에 일자리 제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우선순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비생산적이고 고립된 생활방식에서 적극적인 노년기를 영위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경제적 소득보충은 물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 및 활동량 증가 등으로 어르신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효과와 일자리사업 참여로 사회적 유대감 강화와 사회관계 개선 등으로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장년층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선도하는 효림!



노인 일자리사업 이외에도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60+시니어, 세대 활동 지원사업인 장년층 지원사업, 회원 중심의 노인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자원봉사 활동사업, '재능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도 눈길을 끄는 사업이다.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실시 하는 정책사업으로,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자기 만족도와 성취감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적 성격의 전문 활동영역이다.

센터는 전북 일자리센터와 전북 경영자총연합회 등 2개의 운영기관과 연계하여 행정업무와 사회서비스 지원, 미용 봉사, 소방안전, 향교 관리, 한자 교습, 의상 보조, 국악 지도, 그라운드 골프, 노래교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노년, 활기찬 인생'이라는 슬로건으로 '숲 체험 행사' '힐링 여행' '효림 거북이 산악회' 중심의 각종 '건강 산행'과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사회적 연대감도 높이는 사업도 어르신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속적 참여로 이어가고 있다.

센터는 동군산병원을 비롯한 6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용시 보다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3곳과 이용협약을 맺고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회원증을 발급해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충전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윤남섭 센터장은 "나눔, 사회공헌, 힐링의 3대 실천 목표를 세우고 저소득과 질병 등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여 노인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만들어 가는 전 과정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어 노노(老老) 케어 사업 참여자는 수혜자의 건강을 돌봐주는 동안 정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의형제를 맺는가 하면, 진포초등학교 도서관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참여자는 손자와 같은 학생들과 아름다운 사연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한다.

자신들이 활동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행복하다는 어르신들이 센터에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 우리는 큰 보람을 느낀다. 한마디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살짝 웃음을 보인다. 무언가를 남에게 베풀 때 주는 것이 크고 작은 간에,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생각했다.

센터는 향후 '공익형 일자리'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어르신들이 현재보다 더 안정적인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이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전·후반기 총 15일여 동안 맞춤형 일자리 상담을 하고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의 안전교육과 네 번의 활동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에게 자신감과 함께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 효림복지센터
 이사장 최정태, 센터장 윤남섭
 전북 군산시 구영6길 101-4
 063)445-7087



최고가 아니면
묻지 마라!!

71년 역사와 전통,
대한민국 대표 타월
전국 최저가에 최고의 품질
송월타월 군산대리점
류응수 대표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목화 천연의 느낌을 살린 친환경 타월부터 무엇보다 실용적이고 항상 곁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착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군산의 자랑 ‘송월타월 군산대리점’과 ‘사랑잠’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0년 역사와 전통의 대한민국 대표 명품 ‘송월타월 군산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류응수 대표. 돌, 백일, 혼사, 환갑, 칠순, 팔순 등 각종 행사나 잔치에 타월이나 우산 등 기념 답례품을 선사하는 것이 작은 미덕이 되어 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을 갖지 않는 선물로 타월이 일반적이는데 이 중 당연히 송월타월을 선택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자부하는 류응수 대표.

송월타월은 1949년 창사 이래, 대한민국 타월 역사와 함께 하며 대한민국 대표타월 브랜드로 발돋움 하고 있다. 현재 송월타월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기술 및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의 다양한 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뛰어난 품질과 다양한 디자인, 친환경 타월 등을 개발하여 고객의 마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의 기프트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송월타월은 새로운 비전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2009년 111,000m(3만3천평) 규모로 완공한 베트남 공장까지 가동하며,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사의 기업경영에 발맞추어 전국 대리점 가운데 유일하게 군산에 두 개의 대리점을 내고 운영하고 있다. 수송동 2호점인 '군산 사랑점'은 아들 가람 군이 지난해부터 독립해 운영하고 있다. 사랑점은 SNS 등을 활용한 공격적인 영업 마인드로 "최고의 상품을 최저가"라는 브랜드화 시키면서 급성장, 본점의 1년 매출에 버금가는 매출을 몇 개월 만에 올리는 등 본점보다 더 빠른 급성장을 거듭하며 착실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타월의 성격상 대부분 행사용이나 기념일에 맞춰 주문제작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케이스, 종이포장, 라벨지 부착까지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정성을 다해 감사의 마음으로 작업을 한다는 류응수 대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작업하는 사람이 행복한 마음으로 작업하면 받으시는 분들께도 그 행복이 전해집니다. 케이스에 종이포장과 라벨지까지 완벽한 마무리를 거쳐 정성이 담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합니다"

류응수 대표의 지역사회 복지지원 활동에도 남다르다. 지난 2017년 08월에는 수송동 천사누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 위원장 전종신, 임성택)에 타월 300장(150만원 상당)을 기탁하기도 했다. 또 9월에는 수송동사무소가 주최한 '수송동 우리동네 어른신 행복한 오늘' 행사에 기념타월을 후원했으며, 봉사단체인 '세노야 봉사단'에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해 오고 있다.

류응수 대표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 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실천하는 삶을 옮기게 돼 매우 뿌듯하고 기쁘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필요한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봉사활동 이외에도 류 대표는 각종 사회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월명신협 이사, 민주평동 군산시자문위원회 부의장, 전라북도 민간 감사위원,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사, 수시탐포럼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끝으로 류 대표는 "목화천연의 느낌을 살린 친환경 타월부터 무엇보다 실용적이고 항상 곁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착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군산의 자랑 '송월타월 군산대리점과 사랑점'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며 그동안 성원에 힘입어 송월타월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고객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더 좋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책임경영의 실천에 있다. 송월타월 군산대리점은 지역사회와 더 많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업체로 거듭 성장하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월타월 군산대리점
대표 류응수
전북 군산시 문화로 69
063)464-8002

송월타월 군산사랑점
대표 류가람
전북 군산시 월명로 162
063)453-8300



군산미공군기지의 현황과 과제

시민감시단 활동과 현안 실천의 발걸음

글 | 박운옥(특별기고)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fill8352@hanmail.net

군산미군기지 앞에서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이면 집회가 열린다. 지난달 15일에도 군산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전주, 익산, 김제 등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평화 지키미'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제626회 차 집회를 가졌다. 장장 2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투쟁을 해왔지만 군산 미군기지는 한미동맹을 무기삼아 대북 선제공격 무기들이 배치되고,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를 명목으로 야금야금 확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군산 미군기지는 어떤 곳이며, 그곳에 배치된 군사시설과 무기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군산미군기지 위치와 규모

군산 미공군기지(일명 WOLF PACK)는 군산시청에서 직선거리로 11km 떨어진 옥서면 선연리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2004년 313만평이던 미군기지 규모는 2005년 아파치헬기 부대 부지(약 15만평)와 탄약고 안전거리(약 49만평) 확보를 명목으로 총 64만평을 강제로 수용, 2019년 기준 377만평에 이른다. 이후 대채 공여지로 12만 7천 평이 추가되어 2020년 현재 총 389만평에 달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의 역사

현재 군산 미군기지의 주변 마을은 원래 갯벌과 바다였으나 일제 강점기 일본의 후지모토(불이) 흥업주식회사가 군산에 들어와 1919년 옥구군에 농장을 설립하고 간척사업을 벌였는데 그곳이 지금의 옥구읍 옥봉리, 어은리 부터 하제까지이다.

- 1940년. 일본군 비행조종사 양성을 위해 다치아라이 육군 비행학교 군산분교 개교
- 1945년. 패전한 일본군이 철수하자 미군정이 시작되고 미 군사고문단이 사용
- 1946년. 여순사건, 지리산 빨치산 토벌을 위한 남조선 국방경비대 주둔
- 1950년. 한국전쟁 시기인 9월30일 미 육군의 기계화 부대가 들어와 주둔
-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군산미군기지는 확장하게 되고 군사력이 증강
- 1974년.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 예비부대인 주한미군 제7공군의 제8비행전투단이 군산에 주둔하여 현재까지 주둔 중(일명 WOLF PACK)
- 2000년. 탄약고를 확장하고 전투력을 증강시키며 대중국 초계 활동을 전개
- 2001년.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 명목으로 주민들을 단계적으로 집단 이주시킴(하제 지역 6개 마을 644세대 강제 이주, 현재까지 진행 중)
- 2004년. 아파치 헬기부대 이전(춘천에서 군산으로) 결정
- 2005년. 아파치 헬기부대 부지 약 15만평, 탄약고 안전거리 부지 약 49만평 강제 수용(새만금 간척지 유보지 1천만평 요구)
- 2006년. 9월 직도 미군 국제폭격장 설치 승인됨
- 2007년. 아파치 헬기부대 예정지 철조망 설치 공사 시작
미군, 군산시와 협의 과정에서 새만금 부지에 추가 활주로 건설을 요구함(미군 순환배치 시작)
- 2008년. 토지 강제수용 절차 마친 후 아파치 헬기부대 예정지 철조망 설치공사 마무리
미군, 새만금 간척지에 약 3만 제곱미터 규모, 총 둘레 431m의 미군EOD(폭발물 처리장)철조망 설치
- 2012년. 미군기지 탄약고 인근 하제마을 주민들 이주단지 조성사업 착공
- 2014년. 탄약고 정비사업 진행(2017년 까지)
- 2018년. 그레이 이글(무인기) 격납고 및 아파치헬기 활주로 본격 시공
- 2019년. 3월 3세대 격납고 18개 시공 설계 완료(2021년 F-35 전투기로 전환 배치할 예정)
- 2020년. 6월 현재 그레이 이글(무인기) 격납고 20개 완공(단계)



군산미군기지 상주 인원

2019년 기준으로 미군 약 2,000명에 군속 및 초정계약자 약 500명에 달하며, 한국군은 약 1,000~1,200명 등 모두 약 3,500명이 상주하고 있다. 미군의 순환배치 시에는 200~400여명의 인원이 증가하며 기지 관련 종사 노동자들이 약 600여명 정도가 있다.

군산미군기지 군사시설

군산기지 안에 있는 2개의 남-북 활주로는 약 2,75km 이며 유도등을



포함할 경우 활주로 길이는 약 4.5km이고 주 활주로는 하제마을에서 산동마을까지 남북방향으로 되어 있다.

격납고는 5분 대기 격납고 10여개를 비롯하여 지붕 없는 격납고 30개가 있다. 또한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 격납고가 2020년 총 20개가 완공단계에 있으며 모두 원-스톱 격납고로 주유, 무기장착, 정비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70여 개의 1급 탄약고와 매그넘 탄약고가 40여 개가 있고(1987년부터 한국공군이 미 태평양공군의 탄약을 저장관리하기 시작) 미군폭발물처리장과 강풍과 일기 변화에 대한 레이다 안테나 등 시스템을 보호하는 레이다 돔이 1개, 지하유류탱크가 11개(남, 북쪽에 각각 5개 북쪽에 외부 유류탱크 1개)있으며, 그밖에 물탱크 2개가 있다.

군산미군기지에 배치된 무기와 운용

군산미군기지는 해수면 보다 낮아 레이다망에 잡히지 않아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최적의 기지다. 대북, 대중국을 겨냥한 신속 기동군 전력 배치되어 있으며, 유사시 한반도 제공권 장악과 북한 기계화 부대 공격 등 대지상 및 공대공 임무를 맡고 있다.

군산미군기지는 상주하는 2개 전투 비행대대, 6개월 마다 순환배치 되는 1개 전투비행대대 등 약 30~40여대의 F-16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다. 특히 유사시 평양의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재즘(ZASSM)'도 배치되었다. (2017, 06,26일 서울=연합뉴스)

한편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군산, 오산 기지의 주한미군 소속 F-16을 F-35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0년대 초반부터 한반도 배치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군산기지에서는 평소 하루에 약 50여회의 전투기 출격 연습

이 있고 국내의 상황에 따라 주일미군 병력과 함께 대규모의 비상훈련 연습을 하는데 이때는 24시간 동안 100~150회 이상의 출격을 한다.

또한 군산미군기지는 최신형 무인 정찰 및 공격기인 '그레이 이글'(MQ-1C) 6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20년 9월쯤 그레이 이글보다 정찰능력과 타격능력이 강화된 그레이 이글-ER 무인 공격기 6대를 추가 배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 육군 제35방공포병 여단 예하부대가 운용하는 패트리엇 포대도 배치되어 있다.

군산미군기지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 더욱 심해지는 미군 전투기 소음

군산미군기지는 전투기 이착륙이 많게는 하루 150여 차례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전투기 소음이 약 110dB까지 치솟는다. 주거지의 한계소음이 65dB이고 90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장기능 저하와 평형력 교란, 청력장애와 두통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 피해는 심각하다.

- 오페수 배출과 기름 유출

70년 이상 사용된 군산 미군기지 내부는 한국정부조차 관여할 수 없어 미군 관계시설을 파악 할 수 없고 또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군기지에서 흘러 나오는 기름으로 기지주변 농민들이 경작하는 논밭이 오염되고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까지 오염되어 지역주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다.

2003년 미군기지 유수분리기 밸브 동파로 인한 장기간의 기름유출 등 송촌마을 기름 유출사건이 2건 발생하였고 2005년 미군기지 내 유류저장탱크 유수 분리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다시 송촌마을에 기름이 유출되어 농수로에서 물을 댄 논 3,000여 평이 기름에 오염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도 미군기



지 주변 논이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원인은 수십 년 간 사용되어 부식된 미군기지의 기름 탱크와 송유관에서 새어나오는 것이라 추정되지만 미군기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미군은 이를 조사는커녕 기름 유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송유관 불법 매설 및 사유지 무단 점유

군산미군기지가 송유관을 매설하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가 총 연장 8Km에 면적이 67,582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1982년 제3부두에서 미군기지로 이어지는 약 9Km를, 송유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또한 송유관 평균 사용 연한이 30년인데 37년이나 된 노화된 송유관을 방치하고 있어 언제라도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 주민 강제이주

군산 미군기지 주변 하제지역에는 6개 마을이 있는데 '기지 주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마을에 터를 잡고 살던 64세대는 강제이주를 당했다. 현재 하제에는 2가구만이 남아있는데 국방부에서는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철조망 설치를 2020년부터 추진 중이다.



시민감시단 활동과 현안 실천의 발굴

2018년 2월에 '군산 미군기지 시민감시단'이 결성되었고 '군산 평통사'도 함께 하고 있다. 현재 시민감시단은 군산미군기지에 배치되고 있는 무기체계, 미군기내 격납고 공사과 기지 확장, 마을 이전 문제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활동이 이후 군산기지 인근 주민을 비롯한 군산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



박은옥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fil8352@hanmail.net

매거진군산과
함께하는
우리 업소



가심비 갑, 맵부심 갑!

분식전문 프랜차이즈
열정분식소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바이럴 마케팅과
그 어디서도 맛 볼 수 없는 차별화된 메뉴개발을 통한
'열정분식소' 만의 맛
"TV 간접광고, 차별화된 메뉴"의 '열정분식소'



가심비 갑, 맵부심 갑!

'가심비(價心比)'란 가격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일컫는 말이다. 흔히 가성비에 반하는 말로 쓰며, 가격이 아니라 심적 만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맵부심'이란 맵은맛에 자부심을 갖는다는 용어로 오직 열정분식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의 장점이다.

지난 2019년 11월 수송동 변화가에 등지를 뜬 열정분식소 군산수송점을 찾아 들어가면 외관부터 불꽃으로 시선을 빼앗는다. 저녁시간엔 이 불꽃의 불빛이 실내를 비추면서 더욱 멋진 공간을 만들어 준다.

열정분식소는 이미 TV를 통해 널리 알려진 분식전문 프랜차이즈로 굳이 소문을 내지 않아도 TV를 통해 알려진 명성을 듣고 찾는 이들이 많다.

열정분식소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도 유명하다.

실질적으로 SBS <열혈사제> 드라마를 시작으로 <아무도 모른다>, MBC <검법남녀>, MBN <레벨 업>, JTVC <열여덟의 순간>, TVN <블랙 독> 등 각 방송사의 인기 드라마 10여 편을 통해 지속적인 광고를 이어가고 있다.

열정분식소 떡볶이는 떡볶이 기본기에 충실한 칼칼하고 깔끔한 맛으로, 유행 없이 꾸준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총 3가지 맛(보통 맛, 열정 맛, 죽을지도 모름 맛)으로 맛을 선택할 수 있다. 보통 맛으로 먹는 떡볶이는 진짜 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처음에 맵지 않더라도 계속 먹게 되면 조금씩 매워지기 시작한다. 열정 맛은 처음부터 맵은맛이 나서 맵은 걸 잘 드시는 분들은 열정 맛을 추천한다. 죽을지도 모름 맛은 상상에 맡기겠다.





열정분식소의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단연코 오징얼 튀김이다. 여자 손 두 개의 길이만 한 오징얼~튀김. 다른 분식점의 오징얼이 너무 질겨서 씹어지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 분들도 열정분식소의 오징얼을 드시고 나서는 질기지 않고 맛있게 먹었다고들 한다.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단독으로도 먹어도 맛있는 오징얼~튀김.

그리고 열정분식소의 치즈. 일반적으로 보통의 떡볶이 속 치즈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굳어서 찢어지지 않는데 열정분식소 떡볶이 속 치즈는 시간이 지나도 잘 떨어지고 굳지 않는다.

열정분식소 또 하나의 꿀템, 바로 '단무자'이다. 원래 단무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얇게 썰려 시원한 맛을 내는 단무자에 취하게 된다. 최근에는 떡볶이에 랍스터를 올린 신 메뉴 '랍스터 빠져떡'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떡볶이와 땀 수 없는 맥주가 있다. 분식점이라면 청소년들만 다니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열정분식소는 성인들도 즐겨 찾는 시원한 맥주가 준비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분식점이다. 저녁시간에는 주류도 판매하고 있어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들도 자주 찾는 명소이며 가족단위 손님들도 꾸준하다.

지난해 11월 열정분식소를 오픈했을 때만해도 맛과 TV 광고 덕분에 찾는 분들이 많아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는 김 대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많이 줄었음에도 전주나 대전 등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열정분식소를 많이 찾고 있다고 전했다.

열정분식소 수송점은 인테리어 2인용부터 4인용 테이블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각 테이블에는 인덕션이 있어 조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편리성을 더했다. 그리고 조명들도 예쁘고 주방도 오픈 주방으로 되어 있어 조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믿고 먹을 수 있는 곳이며 무엇보다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는 주인장의 미모가 한몫을 더한다.

열정분식소 수송점 김연희 사장은 "열정분식소는 모든 연령층의 입맛을 사로잡을 만한 다채로운 메뉴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가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배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맞추어 배달도 가능하기에 소비자는 안방에서도 열정분식소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분식점이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성공을 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제 막 40줄에 들어선 김연희 사장의 야심은 아무지다. 열정분식소 수송점의 성공을 시작으로 군산의 최대 상권인 나운동과 조촌동 롯데몰 인근에 열정분식소 분점을 내고 싶다는 김연희 사장의 열정과 꿈은 '가심비갑, 맵부심갑' 만큼이나 뜨겁고 맵다.

열정분식소 군산수송점
대표 김연희
전북 군산시 수송길 6, 1층
063)468-9696

교사가 행복하고
학생이 즐겁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꿈꾼다

서수초교
김신철 교장

글 | 한경진(특별기고)
군산교육청 학부모기자단 회장
8321827@hanmail.net



TV에서나 볼 수 있는 영화배우 같은 미남형의 소유자이면서 만능 엔터테이너이기도 한 서수초교 김신철 교장. 학교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을 수십 년간 지도해 왔던 엄격한 인상의 교장선생님이라기보다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의 선생님을 만나 그의 교육이념과 철학에 대해 들어보았다.

서수초교 김신철 교장은 공직자인 아버지와 성품이 온화하고 인자하신 어머니의 3남3녀 중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화목한 생활환경은 학창시절 친구들과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이 됐고,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격려는 따뜻한 리더십의 원천이 될 수 있었다.

“학창시절 열정적으로 학생을 지도해 주고 작은 일 하나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은사님을 보며 교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르침을 주셨던 그 은사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훗날 김신철 교장에게 교사의 길을 가게 해주었고 교직 생활의 나침반이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김신철 선생님이 첫 발령을 받은 곳은 충남 서천군 중천면에 위치한 산골학교였다. “교직의 첫발을 내딛게 된 곳이 시골의 작은 산골학교였지만 투명하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선생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그 때를 회상했다.

크고 작은 농어촌학교를 시작으로 도서(島嶼)지역 학교나 벽지학교 등 20년 5개월 동안 평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꿈과 사랑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가르치는 보람으로 교직생활을 해오셨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직원의 역할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 인사와 학생중심의 수업, 그리고 동료 교사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끈끈한 동료애를 형성하며 화합과 협력으로 이끌어 왔다.

김신철 선생님에게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준 건 다음 아닌 “교직원 인화단결”이라고 했다.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돕고 위로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고 있다.

평교사와 교무담당 교사 등 학교 행정보직을 거쳐 지난 2012년 9월 회현초등학교에서 첫 교감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3년여 만인 2015년 교장으로 승진해 당시 군산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았던 미장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큰 학교의 관리책임자로서 학교 구성원들 간 지속적인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해 구성원 간 갈등 없이 원만한 학교운동을 위해 노력하였고, 학생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물론 ‘학부모회’와 ‘어머니배구단’, ‘미장초 아버지회’ 등 학부모 조직 활성화로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했다.

특히 김신철 교장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며 학생들과 긴밀한 관계를 주고받아 학생들이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미장초교 근무 당시에는 학생 배구부가 ‘2017 홍천 전국 유소년클럽 배구대회’와 ‘2017 김연경 유소년컵 전국 배구대회’에서 우승을 거두었던 추억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당시 학생들이 전국대회를 연거푸 우승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전국에 미장초의 명성을 알렸던 것이다. 교사,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협력 없이는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이듬해 2018년 3월에는 서수면에 위치한 서수초등학교에 공모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김신철 교장만의 독특한 교육철학은 이곳 서수초교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농어촌 혁신학교와 큰 학교에서 경험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수초등학교의 특성에 맞게 이를 적용해 “교사가 행복하고, 학생이 즐거우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김신철 교장.

“시골학교지만 ‘방과후 수업’과 ‘돌봄 교실’ 등을 통해 학생들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함으로써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행복 바이러스가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노력 끝에 교사 두 분이 2018년과 2020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수상한 것을 비롯해 2018년에는 서수초가 ‘과학 우수학교’로 선정돼 전북 교육감 표창을 받기도 했다. 아이들과 함께 마라톤에 참가하기도 하고, 대둔산 정상을 등반하기도 했으며, 매월 인사를 잘 하는 학생을 ‘인사 왕’으로 선발해 정검과 예의를 잘 지키는 예절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했다.

또 학생들의 취미와 적성개발을 위해 연극과 난타

공연을 비롯해 야영활동 등 체험위주의 활동을 통해 재미있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지역에서 개최되는 면민대회 등 각종 행사장에 학생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소속감과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했다.

특히 서수초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 교육에 긍정적인 성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학교에 있는 풋살장과 게이트볼장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고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과 교직원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수초 교사들의 복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돕고자 군산시에 ‘코로나19 돕기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신철 교장은 올해 임피중 공모교장을 선발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군산시 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회원 간 소통 확대, 복지 및 교류 확대와 권리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외부활동 이외에도 김신철 교장은 교직원 ‘배구 동아리’를 비롯해 서수초 교직원 ‘풋살 동아리’ 등 스포츠 동아리에 참여해 자신의 운동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기도 했다. 틈틈이 전라북도 교원들로 구성된 ‘성악 동아리’에까지 참여하는 등 예술적인 감각까지 겸비하고 있는 만능 능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학교 경영자는 교육 이념과 철학에 근거한 융통성 있는 지도성을 필요로 합니다. 기계적이고 경직된 경영을 하기보다는 학교의 상황조건에 적합한 경영자의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지도성이 요구됩니다.” 라고 밝히는 김신철 교장은 서수초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학교가 ‘더’ 활기차고 선생님들은 ‘더’ 보람을 느끼고 학생들은 ‘더’ 행복하며 학부모들은 ‘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교육을 실천하는 김신철 교장. “실제와 동떨어진 말로만의 교육에 그치지보다는 스스로의 실천과 모범을 보여서 훨씬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의 말은 교직 사회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의 학교사회는 수행해야 할 과업, 구성원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놀랄 정도로 많이 변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새로운 학교문화의 창출을 도모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학교경영의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김신철 교장을 통해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변화하는 학교, 교사가 행복하고 학생이 즐거운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서수초등학교
교장 김신철
063)453-3169



한경진
군산교육청 학부모기자단 회장
군산시 학부모교육 자문단
임피중학교 학부모 회장
8321827@hanmail.net



왜 親日論爭에서 채만식을 물고 늘어지는가?

글 | 한상희(소설가)
carpenter052@naver.com



이따금 우리 역사교육의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곤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특히 역사소설을 써보겠다고 결심한 이후부터이다. 필자는 과거 조선시대 서자출신 유자광(柳子光)의 피 터지는 생애를 그린 <그을린 後孫>과, 중종시대 조광조(趙光祖) 개혁정책의 허와 실을 냉철하게 파헤친 <그을린 改革> 소설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내친김에 숙종시대 비련의 중전 <장희빈> 소설을 하나 더 써볼까 고민하다 말아 버렸다. 당초 계획해왔던 다른 주제의 소설 집필이 더 급했기 때문이다. 이 역사물을 다루면서 조선왕조실록 등 모든 관련 자료들을 반대 잡듯 살살이 뒤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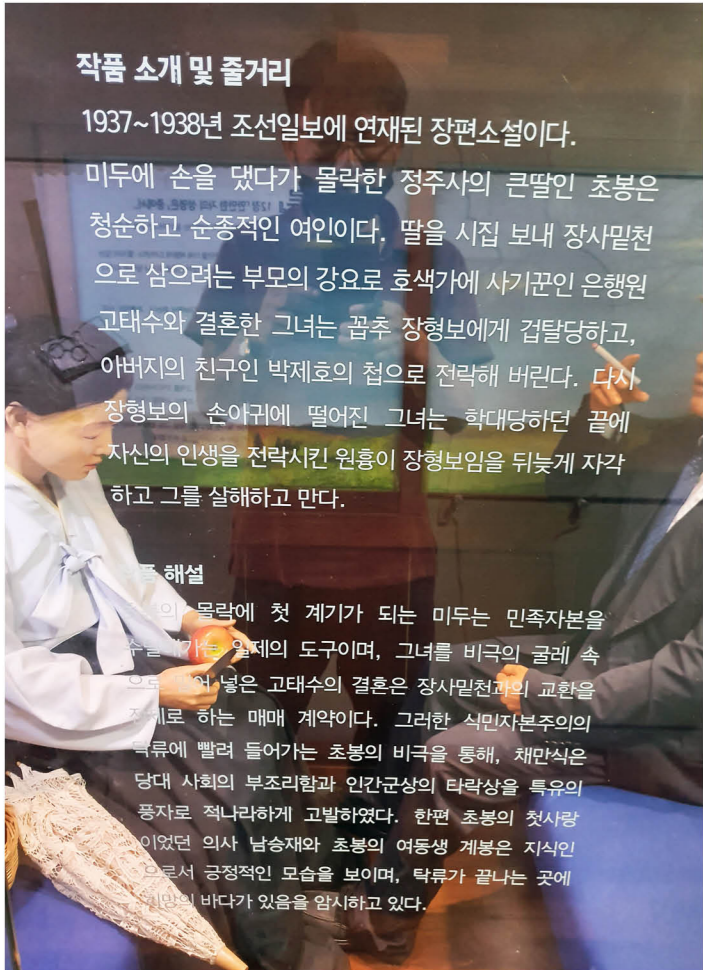
언젠가부터 역사평가에서 Anti-Anthropocentrism(反-人間決定論)이라는 신조어가 돌연 생겨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나 하면, 과거 역사는 그 시대의 절대군주나 영향력 있는 인물을 위주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첨단과학 시대인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 정확한 역사를 도출하기 위해선 그 간 소홀히 다루졌던 민초 등 수많은 기초 자료들이 대거 요구되게 된 것이다. 그 취지는 역사평가 오류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데 있다. 그래서 그런 신조어가 생겨나게 됐던 것이고, 지금은 선진국에서 거의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만은 아직도 구시대적 역사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연·지연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나도 역사소설을 집필할 때 이 새로운 이론에 입각해 쓰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현재 집필중인 단행본 <민중미술사, 900쪽 이상>도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중략)

화제를 바꿔, 채만식 작가 친일논쟁(親日論爭) 발단은 '전북시 민연대가 지난 2002년 9월10일 발표한 <채만식 100주년 기념행사를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서부터였던 것 같다. 이에, 전북문화원과 한국문인협회 '군산지부' 등이 반박하면서 과열됐다. 점점 잠잠해진 상태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이 성명서 파문은 고창의 서정주 문학관에도 일파만파 번졌었다. 한편, 김** 원광대 국문과 교수도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저서에서 채만식 등을 '親日 확산범'이라고 단정지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판단으로 그런 극단적인 단정이 내려진 것일까? 그런데 '김'교수는 그의 저서(백석전집, 실천문학)에선 시인 백석과 한 때 그의 연인이자 대연각 기생(妓生)이었던 자야(본명: 김영한)에 대해 찬미일변도……. 즉 용비어천가를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가 오판한 것일까? 이 하나만으로도 '김'교수의 문학적 분석 및 비평 성향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여하튼 필자는 '자야'를 아무리 곱게 봐주려 해도 '김'교수의 의견에 동조할 수 없다. 즉 기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오해 말라. 기생의 사랑이라고 해서 애써 폄훼하는 것은 아니다. 단편소설 <별>로 유명한 알퐁스 도데의 <사포>나 알렉산더 뒤마의 <동백꽃 아가씨> 등 그 보다 몇 배나 순수하고 감동적인 사랑을 그린 문학작품은 비밀비재하다. 백석과 자야간의 사랑을 너무

미화한 느낌이 들어 하는 말일뿐이다. (필자의 <길상사(吉祥寺)> 제하 글 참조)

다시 Anti-Anthropocentrism 이론으로 되돌아와, '전주 시민단체'는 성명서 발표에 앞서 채만식 작가의 친일주장과 관련해, 1930년대 중반부터 해방까지의 시대 상황을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진지하게 연구했는지 모르겠다. 당시 일본은 2주 만에 끝낼 것으로 오판하고 중국침략을 감행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일본 패망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 중국침략이 2주는커녕 장기전으로 접어들자, 일본에게 있어 당면과제가 연료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산 목재 확보였다. 그러나 필리핀 주둔 美軍(사령관: 맥아더)이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래서 이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교육지책(苦肉之策) 일환으로 대대적인 진주만 폭격을 감행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항공기가 기술적 한계로 재급유 없이 본토에서 필리핀까지 직항할 수 없었다. 일본은 중간 급유지인 진주만을 폭격하면 자기네를 계산대로 될 줄 알았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가한 강제징용과 탄압 만행은 거의 발광수준이었다. 이 기간 중 모든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시인 '윤동주' 등도 잡혀가 옥사했다. 그런데 그건 아는가? 윤동주가 일본 '도시샤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히라누마'로 창씨개명했다는 사실을……. 그에 반해 같은 일본 유학파인 채만식은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했다. 그 결과로 후반기 그의 작품에서 친일성향이 좀 나타난 것 뿐이다. 조선인 탄압 그 대표적인 피해사례 중 하나가 태평양 마리아나 제도 '노스필드 비행장' 공사현장에 투입된 조선인 강제동원 등이다. 조선인 탄압피해는 정말 참혹했다. 이 비행장은 나중에 일본 히로시마 원폭투하 발진지로도 유명하다.

김** 교수가 극에 달한 일제의 시대적 만행사실은 고려치 않고 채만식 등 문인들이 "자진해서 親日글을 썼다"고 분석했는데, 과연 그랬을까? 유감스럽지만, 나는 이를 달리 해석하고 싶다. 당시 조혼(早婚)관계 때문에 대부분의 문인들은 가정을 이룬 고도의 지식인들에 속했다. 저명 문인들 가운데 일본 유학은 필수코스이기도 했다. 그래야 문인으로서 필력을 날릴 수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 의무적으로 짊어져야 할 과제는 누가 뭐래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일이었다. 즉 먹고사는 문제가 급선무였다는 뜻이다. 당시 용정 등 중국 땅에서 살았던 유명 문인들과 비교하지 말기 바란다. 그들은 일제의 감시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일제의 눈치를 안 보고도 입에 풀칠하며 살 수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내 문인들에게 어쩔 수 없는 생계형 親日대신에 '똥지개'라도 날라 가족들을 연명시켜야 했다고 주장해야만 옳은 것일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제 하반기 문인들은 윤동주 등의 처참하고도 끔찍한 옥사를 분명 전해 들었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누구나 친일이라고 말하기 쉽지만, 당시로서는 생명권을 담보로 한 일제의 강압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도 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는가?



임피驛舍 '새마을'호 객차 안 탁류 얘기

작품 소개 및 즐거기

1937~1938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장편소설이다.

미두에 손을 댔다가 몰락한 정주사의 큰딸인 초봉은 청순하고 순종적인 여인이다. 딸을 시집 보내 장사밀천으로 삼으려는 부모의 강요로 호색가에 사기꾼인 은행원 고태수와 결혼한 그녀는 꾀추 장형보에게 겁탈당하고, 아버지의 친구인 박제호의 첩으로 전락해 버린다. 다시 장형보의 손아귀에 떨어진 그녀는 학대당하던 끝에 자신의 인생을 전락시킨 원흉이 장형보임을 뒤늦게 자각하고 그를 살해하고 만다.

해설

의 몰락에 첫 계기가 되는 미두는 민족자본을 추락시키는 일제의 도구이며, 그녀를 비극의 굴레 속으로 끌어넣은 고태수의 결혼은 장사밀천과의 교환을 전제로 하는 매매 계약이다. 그러한 식민자본주의의 특성에 빨려 들어가는 초봉의 비극을 통해, 채만식은 당대 사회의 부조리함과 인간군상의 타락상을 특유의 풍자로 적나라하게 고발하였다. 한편 초봉의 첫사랑이었던 의사 남승재와 초봉의 여동생 계봉은 지식인으로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탁류가 끝나는 곳에 미두의 바다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채만식 親日주장 단체나 학자가 당시에 살았다면 일제의 회유와 위협에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할 각오로 맞설 수 있었을까? 단언컨대 99%는 절박하고 처절한 심정으로 親日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역사가 수없이 말해주고 있다. 혹여 이런 반박도 나올지 모른다. 광복군은 만주 등에서 고픈 배를 움켜잡고 싸웠다고……. 천만의 말씀! 문인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못지않게 싸웠을 것이다. 문인들에게도 조선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점만 똑똑히 인식해주었으면 한다. 우리 이제 선진경제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아집어린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 합리적인 역사평가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볼 때도 됐다. 필히 징벌해야 할 친일 대상자는 누가 뭐래도 창씨개명을 뛰어넘어 천황께 혈서로 충성맹세한 사람과 악질경찰 '노덕술'을 비롯한 당시 극렬분자 등에서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승만은 자기 집권 욕에 눈이 어두워 그런 노덕술을 반공인사라고 극찬했었다.

게다가, 채만식은 <레디메이드>, <태평천하>, <탁류> 등 걸작들에서 풍자와 해학인 간접수단으로 抗日정신을 불태운 사람이다. 1930년대 중반 이전 그의 작품들에서 그 어느 누구도 親日성향이 배어있다고 꼬집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채만식은 분명 어느 누구보다도 민족정신이 강했던 작가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1930년대 말 이후 그의 일부 작품들에서 친일로 오해받을 만한 문구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가 '김'교수의 지적처럼 이런 문구들을 정말 자발적으로 썼을까? 反-人間決定論에서 지적됐듯이, 색안경을 벗고 그 당시 불가피한 악조건 상황과 연계해 객관적으로 면밀히 바라본다면, 오히려 親日이라고 지적하는 그 자체가 語不成說 아닌가? 아니면 역사인식을 잘못하고 있을지도……. 재차 강조한다. 국민들로부터 칭송받고 있는 '윤동주'는 창씨개명 했으나, 우리의 '채만식'은 이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다. 그래서 되묻고 싶다. 누가 더 지조 있는 작가였는지를?

북한인민군이 1950년 6월 말 서울을 함락하기 직전, 이승만 등 고위관리들은 라디오방송으로 거짓 선동하면서 자기들만 살자고 한강다리를 폭파한 후, 서둘러 대전으로 줄행랑쳐 버렸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순진한 시민들이 서울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절박한 심정으로 발만 동동 굴러야 했고 죽어나갔는가? 여기에는 천재시인 '노천명'도 포함돼 있었다. 그 도도하고 황소고집인 노천명은 카프문학 선구자 중 한명인 '임화'를 비롯한 북한인민군 총부리(the muzzle of a rifle) 위협에 어쩔 수 없이 굴복, 3개월간 부역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도 가혹했다. 그녀는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재탈환한 국군에 붙잡혀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녀가 부역을 하고 싶어 했는가? 물론 여기서 그녀의 친일논란은 별개다.

종전 후에도 오랜동안 노천명과 같은 마녀사냥 식 부역피해자가 陸士를 비롯해 주요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는 등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문인들의 親日도 부역문제 선상에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때 抗日투사였던 '김구' 선생도 빨갱이로 낙인 찍혔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모두로부터 존경받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 때 '이승만'의 역살을 쥐어 잡고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너는 없는 나라도 팔아먹을 X이다"라면서 육두문자를 퍼부었다. 더욱욱 한심한 것은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다는 점이다. 그거 아는가? 여운형과 박헌영이 한 때 상해 임시정부 요원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항일(抗日)은 뒷전이고 벌어지는 권력 암투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뛰쳐나와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것이다. 원래 박헌영의 로망은 영어공부에 매진하며 미국 유학

길에 오르는 것이었다. 결론은 상해임시정부를 너무 미화하지 말라는 뜻이다. 2차 대전 후, 프랑스 드골정부가 자국 나치부역자들에게 가했던 것처럼 가혹하게 처벌할 시기는 이미 실기해 버렸다. 우리는 죽기보다 싫지만 이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젠,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혜로운 차선책을 찾아야 할 때다.

당시, 일제가 극도로 경계한 대상은 사회주의 사상이 깃든 카프문학이었다. 그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 '임화'도 일제의 회유협박에 끝내 굴복, 카프문학 지도자 직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일제 경찰에 잡혀가 받는 그 고문들 상상이라도 해봤는가? 우리의 과거 중앙정보부나 경찰들의 고문기술도 그들로부터 답습한 것이다. 그래서 '이한열' 열사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특히 일제에 잡혀간 여성들은 제일 먼저 옷 벗겨지고 강간당하기 일쑤였다. 제한된 지면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중략)

한 때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 국회의원도 부친의 친일전력 논란에 휩싸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분들은 자비를 베풀어 그 분을 국회로 입성시켜 영광스러운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었다. 우리 이제 좌/우 논쟁 때처럼 서로 헐뜯지 말고, 친일인사를 단죄에 있어 경중(輕重)을 가리는 등 지혜와 중지를 모아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은 좀 조용해졌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 특히 軍 미필자들이 유난히 반공-애국하며 게 거품 물곤 했다. 나는 이런 것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중성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한 작품이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3~4편이다.

필자는, 그간 시민단체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 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순수단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하나의 이익단체로 보는 측면도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때에 따라 자기가 보고 싶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둘러보는 혜안을 가졌으면 한다. 거두절미하고, 시민단체는 채만식을 제2의 장발장으로 만들어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그의 위대한 문학적 업적이 입시지옥 등으로 허덕이는 청소년들에게 미칠 정서함양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않았는가? 필자는 감히 그의 문학적 업적과 비교해 친일논쟁을 조족지혈(鳥足之血)로 보고 싶다. 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일개 시민단체의 주장이나 성명에 이상하리만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지역 정치인들이나 일부 관계자들의 용렬한 태도다. 군산을 포함한 전북인들은 똑똑히 기억해두셨다가 다음 선거에서 이런 영혼 없는 정치인들을 반드시 도태시켜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의 밝은 미래가 담보될 것이다. 백번 생각해봐도 채만식 친일논란은 어불성설이다.

(다음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방치상태인 임피 채만식 생가터



소설가 한상희
담양 출생
성대 영문과 졸업
홍익대학원 미술사학과 중퇴
장편소설 등 20권 저술

노블한방병원 비만 특강 다이어트 특강 1.

당신은 왜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가! 살은 뭘 먹어야 빠지는 게 아니고, 뭘 안 먹어야 빠지는 거다. 너 말이야. 너!

고객님 굿 다이어트 하셔야겠어요. 이 말했는데 왜 굶냐고요. 다이어트가 굶으란 뜻이야?

‘diet’는 원래 그리스어 diaita에서 나온 말로 ‘생활방식(way of living)’이란 뜻이다. 원래 뜻은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량’이나 ‘식습관’인데, ‘살 빼는 식사’로 오용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이 말하는 굿 다이어트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지세요!” 인데, 듣는 사람은 “굶어서 살 빼세요”로 듣는다는 것이다.

“원장님 저는 물만 마셔도 살찌요.”

“고객님? 물은 칼로리가 없습니다.”

“원장님, 저는 하루 한 끼만 먹는데 안 빠져요.”

“한 끼를 많이 드시는가 보죠? 그리고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면 몸에서 기아 상태로 인식해서 들어온 칼로리를 최대한 저장하려고 해요. 지방이 있어야 호르몬을 만들죠. 호르몬 없으면 1분도 못살거든요.”

“원장님, 저는 밥이라곤 정말 두세 숟가락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밥만 안 드시는가요? 하루 중 총 섭취한 음식량을 1주일간 적어주세요. 그 후론 못 본 너.

일주일 굶어서 3kg로 뺐다고 친구들이 축하 주 사줘서 다시 제자리로 갔는데 웃은 왜 안 맞을까? 응. 그게 요요야. 굶어서 빠질 땐 수

분이랑 근손실이 먼저 생기고, 먹으면 지방부 터 올라오는데 지방이 근육보다 부피가 30% 더 크거든.

지구상에 여자가 단 한명만 남아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

- 1. 미용, 성형
2. 비만크리닉

미용, 성형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현찰 준비. 나머지 의사님께서 알아서 해줄 거임. 비만은 절대 그런 것 없음. 의사와 환자가 상호간에 신뢰를 형성해서 지속적인 상담, 관찰, 관리를 해야 되거든. 과실비율 5:5 사고 인거랑 같음. 서로 잘못했다고 우겨봐야 결과는 항상 같음.

전국 유명하다는 의원에서 주는 다이어트 약? 다 똑같은 약이야. 굳이 보령까지 안가도 돼.

지방흡수 억제제, 리덜틱 계통, 똥에 기름 똥똥 뜨지. 대사 장애가 있어서 지방흡수 억제 시키는 약이거든.

식욕억제제. 이거 항정. 항정신성의약품, 정신과 약, 항우울제, 교감신경흥분, 눈 커지고 입 마르고 가슴 두근거리고 소화 안 되고 식욕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김. 그 부작용을 제대로 느끼라고.

할 말은 많고, 너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라고 시키는 것은 많고, 너는 하기 싫을 뿐이고.

7시 이후에 수송동 먹자골목에서 제발 마주치지 말자. 전번 공개해서 요기요랑 배달앱에 수신거부 걸어두든지.



최연길
노블한방병원 원장
전) 신명한의원 원장
전) 군산시한의사회장
chshch@hanmail.net

한국판 뉴딜 정책과 물의 가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저성장, 저소비, 비대면 등과 같은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목격하고 체험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가 지난 세기말부터 계속해 논의 해오고 있는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물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정보의 개방과 공유와 같은 것들은 이제는 보편적 개념이 되고 있다.

그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변화들을 생각할 때, 주로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나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같은 것들을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통해 비대면 채택 문화나 플랫폼 중심의 산업 생태계 등과 같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15일 정부는 선제적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 규모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뉴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그린 뉴딜, 그리고 사람 중심의 포용적 국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 3대 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물 관리의 중요성이나 역할도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7일에는 군산을 포함한 전북도 내 지자체 4곳이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환경부와 K-water는 무분별한 도시개발에 따른 물순환 왜곡현상 및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나 가뭄 등 도시물문제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워터시티 조성과 ICT 기반의 도시물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에는 파주 등 수도권 지역과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의 표준 플랫폼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전북권이 서울 및 경기권과 더불어 가장 많은 기초 자치단체가 선정된 바, 향후 물 관련 분야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water는 1967년 설립 이후 국가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과 개발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국민 생활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다. 또한, 전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에서 5번째로 큰 규모의 용담댐과 부안댐을 관리하고 있으며,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활용해 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다목적댐을 활용한 수력발전은 물론 친환경 녹색전환을 위한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등 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수상태양광의 상용화 모델을 개발하였고, 합천댐, 보령댐 및 충주댐 사업을 완료(5.5MW)하였다. 향후 합천댐 40MW 등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이 활성화 된다면, 탄소저감형 녹색전환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긍정적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디지털시대 정보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물과 에너지는 서로 긴밀하

게 연계되고 있으며, 여기에 식량 부문을 포함(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14년 이후 50% 이하로 떨어짐)하는 ‘물-에너지-식량 넥서스(Nexus)’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를 생산하기 위한 해수담수화 설비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스마트 팜 등 농업 부분에서의 효율적인 물 관리나 산재된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 촉진 등 미래 물 관리를 위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 7월 20일 환경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미래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K-water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물관리나 새만금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이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경제 체질의 전환과 함께 물 문제도 해결하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채효석
K-water연구원 원장
국토부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위원
한국수자원학회 이사
chyosok@gmail.com

생명의 강 물이야기

4대강 수질문제에 대한 소고

지구의 물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라는 질문에 과학자들은 46억년 전 지구를 생성하기 위해 결합된 원시 성운 파편들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구상의 물은 해양, 하천, 호수, 지하수, 빙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물은 해양에 존재하고 인간이 사용하는 물은 하천이나 호수에 존재하는 0.01%에 불과하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문명과 산업의 원동력이자, 현대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인 인자가 충분한 양의 물 공급이라는 이야기가 인간에게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

세계의 많은 나라는 심각한 물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계인구의 40%에 해당되는 80개국에서 식수난과 용수난을 겪고 있으며, 개도국 질병의 80%가 비위생적인 식수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또한 강의 유량 통제를 둘러싼 상하류 국가간의 물분쟁이 많은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21세기는 물 분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과 관련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세계 10대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 하천 특성상 부족한 수량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하천 정비를 통해 16개의 보와 3개의 댐을 건설함으로써 만성적인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된 사업이다.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보의 철거를 주장하는 환경단체가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의 철거를 반대하는 일부 지자체와 농민들의 시위도 기사거리로 보도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환경문제는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속담과 같이 강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보에 갇힌 물은 계속 썩어

가고 있고, 오염된 수질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생겨나고, 물속의 산소부족으로 인한 물고기의 대량 폐사가 4대강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하계가 되면 부영양화로 인해 녹조가 번성하여 강물 위를 폐인 트릴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화현상 등 많은 환경적 변화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환경사업의 하나인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시절 추진될 때 미래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명품의 하천 시설을 했다고 자화자찬하던 정부 관계자도, 4대강 사업을 지지한 환경 전문가들도 지금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정부는 찬반의견에 대해 전문가 연구집단의 연구를 통해서 결정하자는 안을 내어 놓았고, 전문가의 연구결과가 나왔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으로 4대강 수질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하였고, 최근 전문가 연구집단에 의한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에 대해 반대한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부의 정책이 아직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금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연구결과에 대해 환경운동가와 환경관계 교수 및 환경정책자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나뉘어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며, 국가의 물환경 정책의 최고 의결기관인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전문가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이 추진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환경정책은 환경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나, 대부분 정책결정자들은 임기 내 모든 것을 해결

하려는 생각 때문에 줄속으로 추진된 환경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국가자원을 낭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곤 한다.

또한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계속 되풀이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가 산업화에 있어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금기사항이다. 이는 한번 파괴된 환경을 다시 돌리는 데는 엄청난 자원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의 발달로 자연환경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과 같은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집단과 정책입안자의 결탁 및 환경전문가의 무책임으로 우리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대한 극히 일부뿐이며 아직도 많은 것을 알아야 하기에 선불리 자연에 대한 예단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연은 우리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물려 줄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환경정책의 추진은 개인적인 이익집단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 아니며, 자연의 순리, 우리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종구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전)군산시 수도위원회 평가위원
한국환경공단 기술자문위원회
kjg466@kunsan.ac.kr

가로막힌 하늘 길

“전북 도민의 유일한 하늘 길 이었던 군산공항 제주노선이 올해 2월 이후로 지금까지 5개월째 운항 중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도민들은 별수 없이 광주공항과 김포공항 또는 배편을 이용해서 제주를 왕래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군산공항 운영이 정상궤도로 복귀해서 애꿎은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전라북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동분서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라북도 조동용 도의원의 5분 발언 첫 멘트다.

전북 군산공항은 지난해 2019년 이용자가 30만명을 넘었다. 이스타 항공이 21만명 대한항공이 9만여명 가까운 이용객으로 2018년 29만명에서 점점 그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러나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하루 3편(이스타2회, 대한항공1회)이었던 하늘 길이 막히고 이제는 완전 텅빈공항이 되어버렸다. 군산을 본사로 둔 이스타 항공은 제주항공과 M&A를 추진하면서 특별한 대책도 없이 운항을 중단하였고 대한항공도 코로나 위기를 이유로 운항을 중단 해 버린 것이다. 이 운항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도민들의 부담이 되었다. 제주를 가기위해 광주공항이나 청주공항 또는 배를 타기위해 목포나 장흥으로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이동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라북도과 군산시는 여행사 승객유치지원금과 항공사 착륙료 지원금을 매년 3억~4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민과 도민의 세금을 지원한 결과가 ‘텅빈공항’으로 남은 것이다. 물론 아직도 이스타 항공과 제주항공의 인수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스타 항공의 미래가 어떠한 결과로 결론 맺어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이스타와 제주항공의 문제를 넘어 다른 저가항공사들과 긴밀하게 접촉해서 다시 하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서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총사업비 7,796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새만금국제공항’의 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물론 이 계획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지고 적정한 예산이 지원될 때에 그것도 가능한 일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완공시점을 2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건설하겠다는 전북도의 입장만 확고한 셈이다. 새만금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언제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생기는 새만금국제공항이 그 계획대로 순탄하게 모습을 드러내 주기를 바라며,

가로막힌 군산의 하늘 길,
시민모두의 뜻을 모아 하루 빨리 길이 열리기를 기원한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

열심(熱心)이란 말의 사전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

“어떤 일에 힘을 쏟음. 그런 자세나 마음가짐.”

다수의 엄마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그렇게 게임에 열심을 내듯, 공부도 좀 열심히 해라.”라는 말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야 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보기에 좋다.

학생은 공부에 열심을 내야하고, 직장인은 회사의 일에 열심을 내야하고, 상인은 장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옛그제 시청 어느 공무원은 직접 필자의 가게까지 찾아와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열심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갔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은 늘 부지런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움직인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언제나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어느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어떻게든 후보자 본인은 물론, 심지어 자녀까지 흠을 찾아내려는 일에 열심을 내는 몇 명의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추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했다.

맹목적인 신앙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 또한 쓸데없는 일에 부지런하다가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필요 이상의 열심을 내다가 자신의 부족함만 들어내기도 한다.

본분을 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대안과 대책을 내야 할 사람들이, 오직 비난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기도 한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반대로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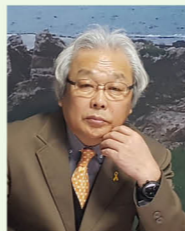
선거철이면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이, 막상 당선되면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유권자들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정치인들의 수가 적지 않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부여받고 살아간다.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혹은 정의를 위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육신의 힘이 허락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며 살아야 한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최소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는 안 된다.

쓸데없이 욕이나 먹을 일에 부지런히 쓰다니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 나는 혹시 그들 중에 포함돼 있지는 않은지 모를 일이다.

우선 자신을 성찰하는 일에 열심을 내 봐야겠다.



남대진
수필가 / 청목하우징 대표 /
군산사료총관 진우상회
공동대표 / 시민·사회·
환경 운동가

군산청소년수련관

전국 최초 청소년 비(非)대면 진로박람회 성공리 개최

군산청소년수련관(관장 이원영)은 8월 1일(토) 군산시 거주하는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청소년 비(非)대면 진로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2020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for동 for동 청소년 진로프로젝트(마을 속 동사형 진로찾기 청소년행동단)'(이하 for동for동 청소년 행동단)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와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온라인 톨 킷(Google Meet)을 활용하여 18개 희망씨앗 직업 체험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직업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체험형 진로체험의 경우 박람회가 시작되기 1~2일 전 직업체험키트를 각 가정에 배달하였다. 박람회 당일 참여자는 온라인 톨 킷을 활용해 직업인과 소통하며 체험하는 진로 박람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박람회 체험신청을 하지 못한 청소년들도 군산청소년수련관 실시간 활동 영상을 페이스북, 유튜브로 공유하여 영상을 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 단위 청소년 활동이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실시간 양방향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과 멘토가 상호 소통하며 진로를 탐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기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진다.

박람회를 기획한 for동for동 청소년 행동단은 20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산지역 청소년의 진로활동환경 조성을 위해 6월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군산 청소년 비대



면 진로박람회 개최를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여 진행 하였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진로를 탐색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진로 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청소년 진로탐색 네트워크 구축으로 허브 역할이 가능한 온라인 진로 맵 제작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진로탐색이 가능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교육 과정의 진로탐색 뿐 아니라 여가시간을 활용한 마을 속에서 진로 멘토를 찾아 자신의 진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 될 것이다.

고영은(for동for동 청소년 행동단, 진포중1) 청소년은 “비대면으로 직업체험을 한다는게 생소해서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쉽게 참여가 가능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직업인 멘토님들이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시고, 청소년에 대한 따뜻한 마음도 엿볼 수 있어서 좋았다. 무엇보다 집에서 키트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혹시 모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걱정 없이 내 방에서 편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다음에 진행 될 온라인 진로 맵을 만드는 활동도 잘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원영 관장(군산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청소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형 뉴딜정책’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안전한 대면 활동과 더불어 비대면 활동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때이다. 군산청소년수련관은 3월부터 다양한 비대면 청소년활동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진로, 문화, 환경, 인성 등의 영역에서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비대면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비대면 청소년활동에 대한 문의는 군산청소년수련관으로 하면 된다. (전화문의 ☎063-461-4166)

군산시민예술촌 “2020 스릴러 페스티벌”



군산시민예술촌(촌장 박양기)은 2020년 ‘스릴러 페스티벌’을 오는 8월29일 토요일 오후8시부터 9시까지 월명동 구.남조선 전기주식회사에서 열린다.

그동안 ‘스릴러 페스티벌’은 야외에서 2,000명이 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150명만 사전참가 신청접수를 받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행사장소로 정해진 남조선전기는 근대 문명의 기반이 된 전기 생산 및 공급과 관련하여 일제강점기 소규모 전기회사로 해방 후 한국전력으로 이어지는 역사

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 2018년 8월6일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724호로 지정된 곳이다.

이곳은 현재 등록문화재로 복원하기 위해 잠시 비워둔 건물인데 건물자체가 이번 행사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장소로 선택되었으며, 문화재인 만큼 훼손하지 않고, 소품 등을 활용해 공포 체험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테마존을 기획하였다.

또한 동선 중간중간 포토존을 설치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곳곳에 역할에 맞는 귀신들을 배치해 한여름밤 오싹한 이색경험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야외무대에서는 달하의 프로젝트 퍼포먼스 공연을 시작으로 스릴러 분위기에 맞는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페스티벌 행사를 총괄하는 박양기 촌장은 ‘군산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잡은 스

릴러 페스티벌을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함을 가장 아쉽게 생각하며, 슬기롭게 공연문화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사전 접수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SNS로 실시간중계를 할 예정이며, 사전 접수는 군산시민예술촌 홈페이지에 8월중순경 신청서를 작성해 선착순 150명 이메일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행사 당일 사전신청자와 행사관계자 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며, 발열체크와 손소독을 필수 하셔야 입장 가능하다. 또한, 거리두기로 인해 올해 관객분장은 취소되었으며 추위 대비 준비한 스릴러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하시면 한여름 밤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공포체험 스릴러페스티벌을 한껏 더 즐기실 수 있을 것이다.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 중정길 17 (구 우일극장)
063-443-7725
www.gsartzone.kr

ASPECT 청소년기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상 수상

‘청소년이 자유롭게 정치하는 날이 왔으면’



청소년자치연구소와 새전북신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ASPECT 청소년기자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이 주관하는 인터넷 선거보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언론사와 기자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을 전업 기자가 아닌 청소년들이 선거보도상을 수상한 첫 사례입니다.

달그락 ASPECT 청소년 기자단은 청소년자치연구소와 새전북신문이 2015년에 협약을 맺고 6년째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초 연구소에서 미디어아카데미를 수료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신문사에서 실제 청소년기자로서 위촉을 받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새전북신문에 ‘달그락 달그락’ 지면을 통해 교육과 복지, 정치 등 청소년 관련 이슈를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사를 실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자단은 인터넷 선거보도상 시상식에도 초대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선정된 보도의 취재기와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순서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참여 기자단 청소년들은 본인들의 활동의 의미와 내용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대표로 취재기와 수상소감을 준비한 이진영 청소년은 2017년도부터 3년여간 청소년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취재기 발표를 준비하던 진영 청소년은 “그 토론회 있잖아요. 국회 갔던 거, 저 그때 어렸는데 사진보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할 만큼 다 생각나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 꼭 말 해줘야 될 것 같아요.”라며, 18세 참정권 공동행동네트워크에서 주관한 ‘국회청소년참정권 토론회’에 참여 했던 기억을 말해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4년 전 14살 때 경험했던 청소년 참정권의 필요성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동기였

다고 합니다.

시상식 당일, 경과보고 과정에서 언론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청소년기자단 기획보도 선정이유로 청소년들이 18세 선거권 이후 정치참여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주체적으로 참여한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4.15 총선에 바란다’ 정책요구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모으고, 지역구 후보자와의 인터뷰로 점검해 나간 점을 유권자 눈높이에 맞춘 보도로 참신성이 돋보였다고 평했습니다.

이진영 청소년은 “ASPECT 총선 취재단이 보도 한 기사들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관한 것들입니다. 설문지 기획, 청소년 정책 모의고사 문제 출제, 인터뷰, 캠페인 영상제작, 명예청소년 증 전달 활동을 청소년들의 참여로 만들어나갔습니다. 이번 총선에 청소년들의 생각을 모으고 전하기 위한 활동들이 있었기에 보도가 완성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같이 활동한 21대 총선 정책참여 활동 TF와 청소년기자단 동료들에게 감사를 돌렸습니다. 또한 청소년들도 이렇게 취재를 할 수 있고, 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표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정치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합니다.

앞으로도 청소년기자단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즐겁게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카페 이야기

카페 <음악이야기>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 후 삶의 의욕을 잃었다.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쉽지 않다. 의욕이나 희망 대신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카페 <음악이야기>. 그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꾀다. 이 소설을 통해 함께 웃고, 같이 울면서 따뜻한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잃어버린 꿈

현우(2)

하루가 꿈속에서처럼 지나갔다.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쳤다. 하루 종일 하청업체 사람들의 전화에 시달렸고, 연락이 되지 않는 정대표에 대한 생각으로 괴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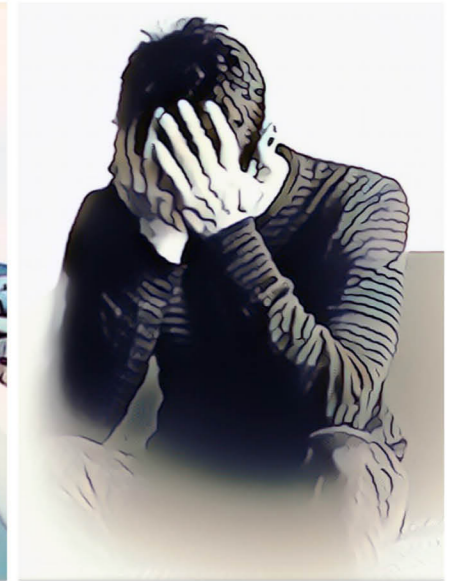
현우는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다. 깜박 잠이 들었다. 악몽에 시달렸다. 눈을 떴다. 예기치 않은 일은 그다음에 일어났다. 누워있던 현우가 몸을 일으킨 순간 몸이 휘청거렸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어지럼이 그를 덮쳐왔다. 다시 침대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느낌으로 멍하니 누워있는데 침대가 뱅글뱅글 회전을 했다. 생애 처음으로 겪는 일이었다. 구토를 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가슴에 통증이 다시 찾아왔다. 금방이라도 가슴이 양쪽으로 빠개질 것 같은 고통이었다. 가슴을 움켜쥐면 현우는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죽음 직전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19를 불러야 할까?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야 할까? 핸드폰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좀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느 순간, 현우는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도 부르지 않으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살아서 고통을 겪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예 목숨줄을 놓아버리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이 점점 명료해졌다. 그저 얼른 이 고통이 끝나고 세상과 영원히 작별하는 순간이 오기만을 바랐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정리되자 마음이 점점 편해졌다. 눈을 감았다.

20분쯤 지났을까. 아니, 30분쯤?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았다. 어느새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은 사라졌다. 온몸은 맥이 풀렸고 식은땀으로 젖어있었다. 한기가 느껴졌다. 온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이불을 칭칭 감아 몸을 감싸며 몸을 최대한 웅크렸다. 눈물이 솟구쳤다. 어떤 의미의 눈물인지 알 수는 없었는데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의 일들이 장면 장면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현우의 가슴에 회한을 안겨주었다.

불면의 시간이 흘렀다. 현우는 애써 잠을 청하려 하지 않았다. 밤이 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아침이 되면 마주해야 할 일이 두려웠다. 그래도 어제까지는 견딜만했는데 이미 소문이 퍼져버린 까닭에 오늘부터는 더 가혹한 일들이 생길 것이 뻔했다. 그러나, 날이 밝아오면서 현우의 생각은 점차 변해갔다. 심해와도 같은 새벽의 시간이 현우를 감성적으로 지배했다면 아침의 시간은 그를 보다 이성적이며 엄격한 사람으로 변모시켰다. 하청업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두려움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회피하는 자신의 모습이 더 끔찍하게 여겨졌다. 무엇보다도 하청업체들의 전화와 항의를 신미숙 과장 혼자서 감당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가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현우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얼마의 돈과, 회사 사무실 보증금을 합하면 절반은 되었다. 나머지 절반은 몇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될 것 같았다. 먼저 죽마고우 윤호를 떠올렸다. 다른 사람이 아닌 윤호라면 해줄 것만 같았다. 같은 마을에 태어나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정을 지속해온 두 사람은 형제와 다름 아니었다. 지난 50여 년의 세월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온 막역한 사이였다. 처음으로 돈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윤호라면 분명히 해줄 것이라고 현우는 의심하지 않았다. 나이 60 될 때까지 열심히 돈 벌고 고향 마을에 나란히 집 짓고 여생을 함께 보내자는 굳은 맹세까지 한 사이였다.

"현우야, 니 딱한 사정은 알겠는데... 나는 우리 사이에 돈문제가 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야."



얼마나 필요하지조차 묻지 않은 윤호가 그렇게 말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 싼 둘에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을 처음으로 부끄럽게 생각했다. 생사를 같이 할 수는 있어도 우정을 위해 돈 문제는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 그보다는 살아오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자책에 괴로웠다. 열심히 돈 벌어서 나란히 근사한 집 지어 여생을 함께 보내자고 말하곤 했던 자신이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윤호는 무슨 생각을 하며 맞장구를 쳐줬을까. 그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으리라. 차라리 말을 하거나 말 것을 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더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차라리 하청업체 사람들에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나저나 정대표는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일까. 이 정도의 돈은 스스로 조절할 능력이 있었을 텐데. 혹시 도박에 빠져있는 걸까? 아니면 무슨 말 못 할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이 되지 않았다. 현우가 정대표의 횡령 이유를 이리저리 생각하며 추측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그들도 나름 예의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이른 아침에는 조용하던 전화기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현우는 회사를 향해 발걸음을 서둘렀다. 그때까지만 해도 현우는 또 다른 나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에 내려 회사 출입문에 이르렀을 때 문 앞에 있는 설비업체 김사장의 모습을 보았다. 회사문은 잠겨있었다. 이미 출근시간보다 한 시간 가까이 지난 시각이지만 신미숙 과장은 출근하지 않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도 현우는 마음이 서늘했다. 신과장이 판단하기에도 회사는 회복이 어려워 보였을 것이다. 아무 잘못도 없는 그녀가 험한 일들을 감당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출입문 도어록의 번호를 눌렀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다시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불길한 생각이 등줄기를 타고 뒷머리까지 올라왔다. 혹시나 싶어 신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있었다. 도대체 누가 번호를 바꿔놓았다는 말인가. 곤혹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하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건물주가 나타났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를 황희장이라고 불렀다. 예기치 않은 이 미묘한 상황에 현우는 까닭을 모르면서도 섬뜩함으로 몸을 떨었다.



이현웅
카페 '음악이야기' 대표DJ
군산시 신지길 66(지곡동)
010-4104-7159

■ 군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위해 총력

인천 미물질(유충) 발생 관련 상수도 시설물 긴급점검 군산시가 최근 인천 서구지역 일원 수도물에서 잇따라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수도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내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20일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배수지 9개소, 가압장 6개소, 소규모 가압장 18개소 등 주요 상수도 시설물을 중심으로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오는 30일까지 시설물의 오염 여부, 청소 상태, 소독설비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물 수질 민원 발생 시 긴급 출동·복구를 위해 현장대응팀을 구성해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 민원 발생에 대응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실시하던 수도물 표본수, 미물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위생 상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으로, 긴급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 요소 발생 시 즉시 보수 및 조치할 계획이다. 진희병 수도사업소장은 “우리 시 수도물은 고산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된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산 정수장은 인천지역 유충 발생 원인인 활성탄 여과장치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무더운 여름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 시설물 점검뿐만 아니라 수도물 안심 확인제 및 수도꼭지 수질 점검 등 수질 모니터링도 강화해 수질오염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수도물 음용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집 수도물 안심확인제’를 연중 상시 운영해 가정의 수도물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은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 또는 시청 수도과 수질관리계(☎454-5383)로 전화하면 된다.



■ 군산시, 군산형 디지털·그린뉴딜사업 선제 발굴 나서

23일, 군산시 정책자문단 군산형 뉴딜사업 발굴 방향 논의

군산시가 정부 역점사업인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임준 시장 주재로 ‘군산형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자문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형 뉴딜 사업 종합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군산시장을 비롯해 군산시 정책자문단 최연성 단장

과 6개 분과위원장 및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향후 5년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부 투자가 집중될 계획인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미래자동차, 고군산군도 관광 인프라 등 기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군산형 뉴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이를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사업 발굴을 위한 분과별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8월 10일에는 정책연구 전문가를 초빙, 한국판 뉴딜 대응 주요 정책 방향 등에 관한 강의 및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판 뉴딜 관련 부처별 정책자료 사이트 활용법,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등 실무자 교육을 병행해 지역주도형 뉴딜 사업을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 각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우리시의 역점사업인 재생에너지 사업, 배달의 명수 등을 뉴딜 계획과 연계해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군산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군산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우수지자체 선정

군산시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 내용은 2019~2020년도 겨울철 기간 동안 복지서비스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한 실적이다.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이·통장 등 생활현황 중사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적은 발굴 5,900여 건, 공공(긴급복지지원 등) 및 민간지원은 5,670여 건에 이른다. 읍면동 맞춤형복지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찾아가 상담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으며, 군산시는 27개소 읍면동에 맞춤형복지부서를 모두 설치해 운영 중이다. 김장원 복지정책과장은 “자원봉사자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변을 조금만 더 살피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 부서로 적극 연락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한눈에 알 수 있는 민원안내’ 제작 배포

시민 편의 제고 및 알 권리 충족

어린 학생들에게 자신이 사는 고장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알려줌으로써 애郷심을 길러주기 위한 ‘찾아가는 군산학 어린이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월 말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군산학 어린이교실’은 지역 역사와 인물을 이해하고 내 고장에 대한 애郷심을 길러주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사업이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미루어져 왔던 군산학 어린이교실은 용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45개교 초등학교(117학급, 2,650명)에 전문 강사를 파견

해 주제가 있는 군산 이야기 ‘군산의 다양한 축제’, 군산의 인물이야기 ‘독립운동가 이인식’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수업의 흥미를 끄는 교육으로 독립운동가 이인식 선생을 주제로 북아트 만들기 및 군산축제에 대한 매직 블록 만들기 등 창작활동 시간을 편성해 참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영재 교육지원과장은 “군산은 역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이자 문화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한 곳으로 군산의 어린이들이 ‘어린이 군산학’을 통해 내 고장의 역사·문화를 흥미롭게 만났으며 애郷심이 싹트고 따뜻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 군산학 책지도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2014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2만1,55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군산학 교육을 실시했다.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추진

장애인 자기계발, 평생학습 도모
9개 기관과 공동 네트워크 구축

군산시가 장애인의 자기계발과 평생학습을 위해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 예절교육 등 3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 시설인 나포길빛공동체 등 9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누구나 차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직업능력 보안을 위한 컴퓨터 및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댄스·난타·트레이닝·노래교실 프로그램, 심리안정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디지털 문화교육,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 속 예절 프로그램 등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배움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함께 배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데 군산시가 앞장서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추진에 따른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및 장애인과 부모가 함께하는 힐링캠프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위한 토지매입 추진

내년 상반기 본격 토지보상 사업 진행
오는 2025년까지 920억여 원 투입

군산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토지매입 추진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장기 미집행 공원 27개소, 531만㎡ 중 7개소 379만㎡를 공원으로 존치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의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그동안 공원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 164억 원을 투입, 25만㎡의 사유토지를 매입 완료했으며, 향후 5년간 7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8만㎡의 공원 내 사유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번 공원 해제 지역은 20개소, 152만㎡로 해제지역 선별은 토지적성검토, 공원이용도, 장래 공원 이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선별했다. 읍면지역 아산에 공원으로 지정된 미개설 근린공원 5개소와 도시계획도로 해제로 접근이 불가능한 도시개발사업 미시행 지역 어린이공원 15개소이다. 근린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도심지에 위치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용도지역을 보전녹지 지역으로 조정해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장기 미집행 공원 전체면적 중 71%에 달하는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게 됐으며, 일몰제 시행 후 군산시 공원은 총 145개소, 598만㎡로 군산시민(28만 명 기준) 1인당 도시공원 면적 21.35㎡를 확보했다. 이는 법적 기준인 인구 1인당 6㎡의 3.5배에 이르고 있는 수준으로 도시공원을 최대로 확보한 것이다. 심문태 산림복지과장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서도 군산의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후손에게 양질의 도심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도시를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시, 공공와이파이 구축

공공장소 50개소에서 무료 이용 가능

군산시가 공공장소에서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오는 12월부터 서비스를 진행한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선정, 정부·지자체·통신사업자가 협업체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과 무선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 시는 주민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작은도서관·관광지 등 공공장소 50개소에 무선AP(공유기) 98대를 설치해 무료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공와이파이는 군산시민과 군산을 찾은 관광객 누구나 통신사와 상관없이 휴대 단말기의 와이파이 설정에서 ‘Public Free Wifi’를 선택하면 무료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공공와이파이 설치로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해 군산시 주요 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GUNSAN CALENDAR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 | | | | 01 양상블 다른 창단연주회 THE QUINTET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 | | | | 02 피아노에코 제19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 | | | | 03 |
| | | | | | | 04 |
| | | | | | | 05 |
| | | | | | | 06 |
| | | | | | | 07 |
| | | | | | | 08 2020전라북도공연 예술페스타. 창작 음악극 '꽃 찾으러 왔단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 | | | | 0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21 |
| | | | | | | 22 |
| | | | | | | 23 |
| | | | | | | 24 |
| | | | | | | 25 |
| | | | | | | 26 |
| | | | | | | 27 |
| | | | | | | 28 |
| | | | | | | 29 |
| | | | | | | 30 |
| | | | | | | 31 |
| 전북공연예술페스타. '사랑의 카운슬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전주아가페합창단 제42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2020 전국 탑10 가요쇼 녹화 군산 예술의전당 | 무관중 공연-2020 진포아리랑(춤으로 보는 다큐) 군산 예술의전당 | 전주대학교 제67회 춘계정기연주회 조예담 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전주시립교향악단 신인음악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2020전라북도공연 예술페스타. 최종 우물 출산기 '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드림청소년오케스트라 제20회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 | | |



전시

군산예술의전당
 클림트의 황금빛 비밀 레플리카전 2020-07-04 ~ 2020-08-15
 제12회 예묵회 회원전 2020-07-17 ~ 2020-07-23

장미갤러리
 전승택 전각, 서각 개인전 2020-08-04 ~ 2020-0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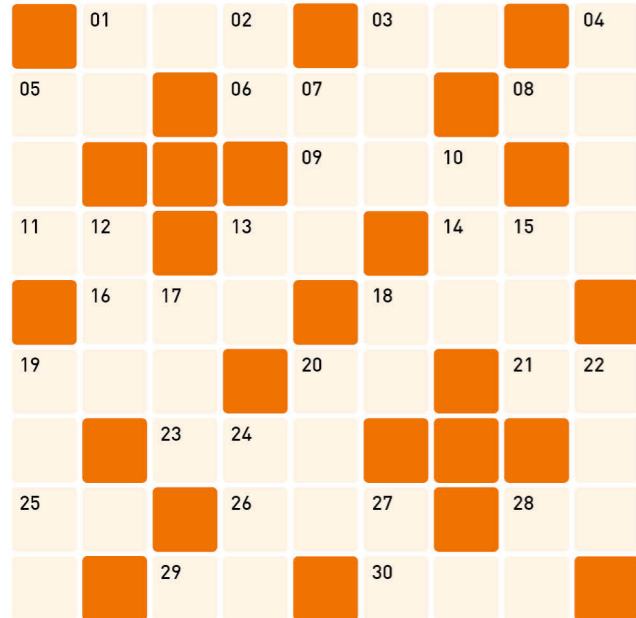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08.07(금)~08.13(목) 제52회 전라북도사진대전 / 제15회 전라북도관광 전국사진공모전
 08.07(금)~08.13(목) 함미정 개인전 '길&풍경 그리고 여정, 장노출, 그리고...'
 08.14(금)~08.20(목) 제16회 전라북도서도대전
 08.21(금)~08.27(목) 제27회 신춘회호대전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 | | | |
|----------------------------------------------------------|-------------------------------------------------------|----------------------------------------------------------|
| 모세스영아원 군산시 쌍천로 82-13(개정동) (063) 452-4075 |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월명로 514(신흥동) (063) 445-9331 | 삼성애육원 군산시 구영2길 1-2(신창동) (063) 445-5947 |
| 일맥원 군산시 석치2길 14(문화동) (063) 462-2385 | 신광모자원 군산시 부곡로 19(나운동) (063) 462-7749 | 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한밭1길 35(나운동) (063) 461-8572 |
|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현면 남군산로 332-45 (063) 466-6088 | 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길 101-7 (063) 464-9944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3길 37(산북동) (063) 466-7981 |

낱말 실력도 늘고, 상품도 받고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109



<제108호 퍼즐 정답>

| | | | | | |
|---|---|---|---|---|---|
| 별 | 미 | 초 | 복 | 전 | |
| 개 | 똥 | 장 | 마 | 식 | 자 |
| 차 | 별 | 도 | 원 | 경 | 애 |
| 반 | 중 | 위 | 기 | 기 | 기 |
| 거 | 절 | | | 레 | 일 |
| 도 | 모 | 사 | 영 | 기 | 외 |
| 외 | 줄 | 사 | 법 | 부 | 사 |
| 시 | 행 | 착 | 오 | 인 | 조 |
| 랑 | 입 | 매 | 수 | 교 | |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446-1856 E-mail. 282pyk@hanmail.net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은 4페이지 협찬업체 참조

▶ 가로 열쇠

- 01 어떤 사실을 화제로 삼아 이러쿵저러쿵 쓸데없이 입을 놀리는 일.
- 03 기업체나 기관에서 직원을 위해 지은 살림집.
- 05 어지간한 정도로 대중 공사가 ㅇㅇ마무리 되어간다.
- 06 경주에 있는, 신라 선덕여왕 때 세운 천문 기상 관측대.
- 08 의사가 병원 밖의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진찰함.
- 09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따위에 관한 학과를 두루 이르는 말.
- 11 조선의 22대왕 정조의 이름. 드라마로도 방영되었다.
- 13 기습을 위하여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둔 병사. 예상치 못한 뜻밖의 경쟁 상대.
- 14 소리가 산이나 절벽 같은 데에 부딪쳐 되울러오는 소리.
- 16 성미가 깔깔하고 악착스러우며 모진 사람. ㅇㅇㅇ근성.
- 18 무기형을 선고받고 징역살이를 하는 죄수.
- 19 모임이나 예식에서 진행을 맡아보는 사람.
- 20 아름다운 얼굴 모습.
- 21 면발이 꾸불꾸불한 인스턴트식품.
- 23 때릴 때에 쓰는 가느다란 나뭇가지.
- 25 타자기나 컴퓨터 따위를 칠 때에 잘못 칠, 또는 그런 글자.
- 26 '사람이 곧 하늘(하늘)'이라는 천도교의 기본 사상.
- 28 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 고인(故人)이 생전에 사용하다 남긴 물건.
- 29 민던 종교를 바꿈.
- 30 고군산군도에서 선유도의 다음으로 대장도와의 사이에 있는 섬.

▼ 세로 열쇠

- 01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가을이 시작된다고 하는 날.
- 02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림, 또는 그런 말이나 짓.
- 03 조선 시대에 서울에 있던 네 개의 큰 대문. 즉 동쪽의 흥인지문, 서쪽의 돈의문, 남쪽의 숭례문, 북쪽의 숙정문.
- 04 판소리 및 산조 장단의 하나로, 휘모리보다 느리고 중중모리보다 빠른 장단.
- 05 뽕뽕이가 변변하지 못하고 모자라는 사람을 낮춰 이르는 말.
- 07 중년 이후에 문제 되는 온갖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 10 동해안 일대가 주산지로서, 콩치를 차게 말린 것.
- 12 등산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
- 13 일정한 기간의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그 합계액을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 15 불교에서, 싸우기를 좋아하여 육도 팔부중의 하나가 된 귀신.
- 17 공공 또는 사회사업의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벌이는 시장.
- 18 앞뒤를 헤아려 깊이 생각하는 신중성이나 분별력이 없음.
- 19 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짐. 의원들의 탈당으로 당이 ㅇㅇㅇㅇ에 빠진 상태.
- 20 은하수를 뜻하는 우리말.
- 22 무명실로 짠 피륙, 목화솜으로 짠 물건을 통틀어 이르기도 한다.
- 24 사람을 부르는 신호로 울리는 종.
- 27 건물 내부는 바닥과 벽과 ㅇㅇㅇㅇ으로 구성된다.
- 28 격투기 스포츠에서 업어치기, 모두걸기, 굳히기 등의 기술이 사용되는 종목.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당신의 구독이
군산의 문화를 꽃피웁니다

Gunsan MAGAZINE
매거진군산 구독신청서

군산의 문화와 언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매거진군산은 100호까지 무료로 발행이 되었으며 101호부터 유료로 배포가 됩니다. 본 CMS 출금이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매달 잡지를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송부 (063)446-1856 해주시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jay0810@hanmail.net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 수납기관명 : ICM(아이씨엠) · 대표자 : 이진우 · 사업장 주소 :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 사업자등록번호 : 401-05-33000 · 수납 요금종류 : 구독료 납부

 매거진군산 구독(7,000원 /월) 매거진군산 + 새군산신문 구독(10,000원 /월)

■ 구독받으실 주소

· 출금계좌 예금주명 :

· 예금주 생년월일 :

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금융기관명 :

· 출금 계좌번호 :

· 예금주 연락처(휴대전화) :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 신청인명 :

· 예금주와의 관계 :

· 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군산 제1호 태양광모듈 공장 설립

(주)참빛솔라에너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태양광,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주)참빛솔라에너지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13-25번지

Tel. +82-41-549-0600

Fax. +82-41-532-8291